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를  
**Promo Plus**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 중일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용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058호

Tuesday, July 2, 2024 A

## 대법, 트럼프 면책특권 일부 인정

2020년 미국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해 온 ‘면책특권’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1일 6대3으로 ‘부분적 인정’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 형사 사건은 11월 대선 전 재판 및 판결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헌법상 3권 분립구조 하에서 대통령의 비공식적 행위에 대해선 면책특권이 없지만 공식 행위 대해서는 최소한 소추에 대한 예비적 면책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가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법무부 권한을 활용해 특정 주에서 합법적 선거인단을 트럼프의 선거인단으로 교체하도록 설득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법무부의 논의에 대한 혐의는 기소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방 대법원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 인증 절차에서의 역할과 관련해 부통령에게 특정 행위를 하



2021년 1월 6일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서 열린 집회에서 미 의회의 2020년 미국 대선 결과 인준에 이의를 제기하며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록 압력을 가하려 했다는 공소 내용은 트럼프의 공무 수행에 해당하며 트럼프는 적어도 이같은 행위로 인한 기소로부터 면책을 받는다”며 “하급심 법원이 이 같은 법리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지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이로써 11월 대선 전 해당 사건이 법원에서 본격화될 가능성은 희박해졌

다. 워싱턴포스트(WP)는 “대선 전에는 정식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연방 대법원 판결 직후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한 커다란 승리”라며 “미국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했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 2면 ‘면책특권’으로 이어집니다

## 독립기념일 연휴 여행 전국 7000만명 떠난다

이번주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전국에서 70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독립기념일 연휴 사상 최대 규모다.

전국자동차협회(AAA)는 지난 주말인 29일부터 7일까지 9일간 전국에서 약 7090만 명이 거주지에서 50마일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올해는 독립기념일 당일이 목요일인 관계로 주말까지 장거리 연휴 계획을 세울 수 있어 이동 인구가 전년 대비 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AA 측은 올해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 여행객들이 대부분 차량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다.

AAA 통계에 따르면 약 6060만 명이 차량을, 574만 명이 항공편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휴 동안 국내 여행지는 해양 지역이, 해외 여행지는 유럽 국가가 인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AA 조사에 따르면 국내 여행지 상위 5곳은 시애틀, 올랜도, 앵커리지, 호놀룰루, 마이애미가 꼽혔다. 해외 여행지 상위 5곳은 밴쿠버(캐나다), 런던(영국), 로마(이탈리아), 더블린(아일랜드), 파리(프랑스)가 선정됐다.

한편, AAA는 ▶3일과 4일 각각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7일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곳곳에서 가장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경준 기자



## 스테이트팜 주택 보험료 최대 52% 인상 추진 논란

단독주택 30%·콘도 36% 등 인상 불가피... 당국 승인 요청

대형보험사 스테이트팜(State Farm)이 주택 보험료 인상을 최대 52%까지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스테이트팜 측은 최근 거주 보험권에 단독 주택 30%, 콘도 36%, 세입자 보험 52% 인상안을 제출했다. 가주는

보험 시장 안정을 위해 보험사들의 인상안을 당국이 검토해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최근 가주에서는 중·소규모 보험사들이 경영상의 이유로 영업을 중단하고 있어 소비자 선택폭이 좁아지고 있다.

이에 요금 인상 도미노가 발생하고 있다. 스테이트팜은 높아진 물가와 여

러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해 보상 비용이 폭등함에 따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나 피쳐 스테이트팜 대변인은 “이번 인상 승인 신청은 장기적으로 가주에서 영업을 지속할 수 있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며 “신청 자체가 최종 승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고객들의 질문과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스테이트팜 측은 지난 3월 가주 내 7만2000여 개의 보험 계약을 갱신하지 않음과 동시에 신규 가입도 받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인성 기자



역주행 차량 돌진 9명 사망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지난 1일 밤 9시27분경(한국 시간)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경찰이 사고 관련 차량을 견인하고 있다. ▶ 관계기사 11면 이희권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김종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급 고가 매입  
• 순금 아기 물반지매입  
•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 제 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 및 통일대화

### 초대장

올해 대한민국 정부가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이날은 탈북민을 진정히 우리 국민으로 포용하고 북한 주민에게는 자유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며 더 나아가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라는 구호를 실질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국가 기념일입니다. 탈북민들과 함께 이날을 축하하고 서로 격려하는 뜻 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1부: 제 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

- 개최사: 김유숙 미주통일연대 워싱턴회장
- 축 사: 줄리터너 미국무부 북한인권대사
- 축 사: 수잔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 축 사: 오공단 자유조선인협회 이사장
- 강 연: 이정호 전 북한노동당 고위간부
- 강 연: 가와사키 에이코 재일동포 북송탈북자
- 강 연: 이성윤 우드로윌슨센터 연구원
- 탈북희생자 추모비 건립기금 전달식



**일시** 2024년 7월 14일 (일) 오후 3시

**장소** 한인커뮤니티센터 1층 대강당 6601 Little River Turnpike, Alexandria, VA 22312

RSVP: 김유숙 회장 info@koreaunited.us

\* 한·영 통역이 준비될 예정이오니 각자 휴대폰에 연결하는 이어폰을 지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간단한 저녁 식사가 제공됩니다.

**주최: 미주통일연대 워싱턴 회장 김유숙**

# “질 여사와 측근들, 인의 장막... 백악관 바이든 상태 몰라”

(미 인터넷 정치매체)

약시오스 보도 “트럼프 때보다 심해”  
NYT “질 여사는 바이든의 문지기  
고위 참모들 직언하기 어려운 구조”



바이든 가족들 “끝까지 싸우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내외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두 손녀와 함께 대통령 전용기로 이동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말 내내 캠프데이비드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는데, 가족들은 “끝까지 싸우지”고 대통령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난달 27일 대선 첫 TV토론회 참패 여파가 거세다. 선거캠프를 비롯한 민주당 안팎에서 책임론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최측근에게 둘러싸여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인터넷 정치매체 약시오스는 백악관 전현직 보좌관들이 지난 TV토론 결과에 충격을 받고 바이든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을 품게 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번 실패의 가장 큰 책임으로 바이든 대통령 및 부인 질 바이든 여사의 측근들이 ‘인의 장막’을 드리우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고 전했다.

약시오스에 따르면 백악관 전현직 관리들은 특히 질 여사와 그 측근인 앤서니 버널 수석보좌관, 애니 토마시니 백악관 부실장 등이 바이든 대통령 주변을 에워싸면서 대통령이 사실상 고

립됐다고 전했다. 심지어 백악관 거주 공간에서 상주하는 직원들조차 최측근들의 만류로 대통령을 근거리에서 보좌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바이든 대통령의 정확한 상태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전직 백악관 직원은 약시오스에 “질 여사가 대통령을 너무 보호하고 버널 보좌관은 질 여사를 보호했다”며 “그들이 우리가 (대통령과 자신들을 위해) 일하는 걸 원치 않아 할 일이 없었

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때에도 대통령 가족과 상주 직원 간의 거리가 이처럼 멀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질 여사와 그 측근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은 전부터 제기돼 왔다.

뉴욕타임스(NYT)의 백악관 출입기자인 케이트 로저스는 지난 3월 출간한 책 『아메리칸 우먼: 현대 퍼스트레이디의 변화』에서 “바이든 대통령 고위 참

모들에게 질 여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문지기’라고 평가했다. 백악관 내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너서클’에 들어가려면 질 여사를 거치는 게 필수라는 얘기다.

버널도 백악관의 주요 사안에 관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로저스 기사는 버널이 대통령 부인의 집무실이 있는 이스트윙을 총괄하는 수준을 넘어, 대통령 참모들이 일하는 웨스트윙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책에서 “버널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성스럽다”며 “누군가는 그가 질 여사를 위해 과속하는 기차 앞으로 걸터갈 거라고 말할 정도”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참모 3인방에 대한 비판도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NYT는 대통령의 심복 3명으로 론 클레인 전 백악관 비서실장, 마이크 도널런 백악관 선임고문, 테드 카우프만 전 상원의원 등을 꼽으면서 “이들은 수십년간 바이든을 중심으로 보필했지만, 평균연령 71세의 좁은 ‘이너서클’에 대한 불만도 크다”며 “‘인의 장막’이 너무 견고해 다른 이는 직언하기 힘든 구조”라고 지적했다.

TV토론 참패 후 민주당 진영에선 바이든 대통령의 최측근들에 대한 비판이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전 백악관 사진부국장 쉐들러 웨스트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 “그들은 바이든이 감기에 걸렸을 뿐이고 ‘안 좋은 밤’을 겪었다고 했다”며 “하지만 그들 모두는 몇 달 내내 ‘조가 몇 년 전처럼 강하지 않다’고 말하고 다녔다. 이제는 대통령이 물러날 때”라고 직격했다.

이승호 기자

## 싸늘한 미국 유권자, 72% “바이든 출마 안 돼”

민주당 지도부·원로는 사퇴 선긋기  
“바이든 끝까지 해내는 것이 최선”  
바이든 측근도 “후보 사퇴 안 할 것”

조 바이든 핵심 측근인 론 클레인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바이든이 대선 레이스에 계속 남을 것은 100% 확실하다”며 “TV토론 결과가 좋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싸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유권자의 민심은 싸늘하다. 미 CBS·유고브가 지난달 28~29일 미 유권자 113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이 출마해선 안 된다”는 답변이 72%로 ‘출마해야 한다’(28%)는 쪽을 압도했다.

2월 같은 기관 조사에서는 출마 반대와 찬성이 각각 64%, 36%였다.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일할 수 있는 정신건강과 인지력을 갖고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도 72%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그렇다’(27%)를 압도했다.

‘바이든 카드’를 끝까지 밀어붙이기도, 급히 ‘환승’하는 것도 여의치 않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봉착한 민주당에선 물밑으로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제이미 래스킨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날 MSNBC 인터뷰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솔직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며 “분명한 것은 바이든이 무엇을 결정하든 우리 당은 통합될 것이고, 우리는 그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원로는 ‘바이든 지키기’에 안간힘을 썼다. 바이든(81) 대통령보다 고령인 낸시 펠로시(84) 전 하원의장(민주당)은 CNN 인터뷰에서 “바이든이 일어나 끝까지 해내는 것이 최선”이라며 “다른 선택은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키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MSNBC 인터뷰에서 당내 의원들 사이에 후보 사퇴에 관련된 대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바이든의 이번 후퇴는 재기를 위한 준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흔들기’가 현시점에서 당 대선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 1면 ‘면책특권’에서 이어집니다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 선거 캠프는 “트럼프는 2020년 선거에서 패배한 후 정신이 나갔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결과를 전복하기 위해 폭도들을 부추겼다. 이번 판결이 사실을 바꾸지 않는다”는 비판 성명을 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패배 후 선거 결과 뒤집기를 시도한 혐의로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됐는데 당시 현직 대통령이였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2월 항소심에서는 만장일치로 트럼프 주장을 기각했지만, 항소법원의 판결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트럼프 요청을 연방 대법원이 지난 2월 말 받아들여면서 심리가 진행돼 왔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취지였는데, 보수 우위

연방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면서 트럼프 주장이 일부 인용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앞서 연방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트럼프 지지자들이 주도한 2021년 1·6 의사당 난입 사건에 가담한 일부 참가자들에 대해 부당 기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의사당 난입 사태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인증을 위한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셉 피셔가 낸 소송에 대해 연방 대법원은 “연방 검찰이 의회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하려면 피의자 행위가 방해 의도가 있거나 실제로 당선 인증을 방해했음을 입증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워싱턴 날씨 (°F)**

3일(수) 88-70	6일(토) 91-72
4일(목) 92-73	7일(일) 91-72
5일(금) 93-75	8일(월) 94-72

7월 2일(화) 86~64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부동산을 잘 팔고 잘 사고  
렌트도 잘 매니지먼트 해드립니다.**

# 부고

사랑하는 **고유경** 박사(미드웨스트대학교 학장)님께서 2024년 6월 27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생전에 고인과 함께 하셨던 많은 분들의 아름다운 추억과 사랑을 간직하시고  
저희 곁을 떠나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고별 예배 (천국 환송 예배)**

▶ 일시 : 2024년 7월 2일 (화) 오후 5시 30분  
▶ 장소 : 와싱턴중앙장로교회 (KCPC, 제 2예배실)  
15451 US-29, Centreville, VA 20121

**하관 예배**

▶ 일시 : 2024년 7월 5일 (금) 오전 10시  
▶ 장소 : Fairfax Funeral Home  
9900 Braddock Rd., Fairfax, VA 22032

**유가족**    아내 : 박경희    장남 : 고요한    차남 : 고유한    장녀 : 고은애    며느리 : 이민정

■ 연락처 : 214-507-1372 / 571-213-9296 ■

# 7월부터 바뀌는 DMV 법률... “기부금대입 전면 금지” 등

워싱턴 지역 전체적으로 7월1일부터 메트로 전철 요금이 12.5% 인상됐다. 이 조치로 구간 최대 요금이 6달러에서 6.75달러로, 기본요금이 2달러에서 2.25달러로 인상된다.

버지니아 의회는 지난 정기회기 모두 90개 이상의 총기규제법을 통과시켰으나 글렌 영킨 주지사가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고 두개의 법안만 살아남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반자동소총으로 개조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오토 시어스 부품에 대한 판매 및 소유 금지 법률과 부모와 가디언 등이 관리 부실로 미성년자가 총기사고를 일으킬 경우 중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이 시행된다

여성인권 존중 차원에서 경찰 등 수사당국은 여성의 생리 주기 등의 정보 취득 등을 목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게 됐다. 낙태 금지 법률을 시행중인 다른 주에서는



낙태 통제 목적으로 여성 생리 정보를 이용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대학 소수계 입학 확대 정책 위한 판결의 여파로, 기부금 입학 및 동문 자녀 우대 입학 제도인 레거시 제도가 전면 금지된다.

버지니아는 부모가 허락한다면 16세도 결혼할 수 있었으나 7월부터는 이 법률이 폐기돼 결혼가능연령이 18

세로 높아졌다.

또한 성 정체성을 이유로 결혼 라이선스 발급을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률도 시행한다.

하지만 종교적 신념에 의해 결혼의식 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권리를 부여했다. 의료용 마리화나 오일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 재소자 인권향상

을 위해 교도소 음부즈맨 제도가 시행된다.

중요범죄 개념을 더욱 확대해 민족적 정체성에 따른 고용 및 주거 제한 등이 금지된다.

메릴랜드는 술 배달 서비스에 대해서도 퍼밋 제도를 도입하고 연간 술 배달 한도를 정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메릴랜드도 버지니아와 마찬가지로 레거시 대학 입학을 전면 금지하고 교도소 음부즈맨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실내에서의 전자담배 흡연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에서 학교앞 스탱파인 카메라 벌금 부과 정책이 시행된다. 몽고메리 카운티 등에서 소음 규제 정책 시행을 위한 모니터링 작업이 시작된다. 사법당국의 잘못된 부당하게 수감생활을 한 피해자를 위한 보상 최대 한도 금액이 늘어나게 됐다.

메릴랜드 신규 등록 차량 등록비가 23달러 인상된다. 공사구간 과속 차량 벌금이 40달러에서 60달러로 인상되며 누적 적발시 최대 500달러로 올라간다. 담배 판매세는 갑당 1.25달러 인상돼 5달러를 기록하게 됐다. 전자담배 판매세도 12%에서 20%로 올라간다.

워싱턴DC는 최저시급이 17달러에서 17.50달러로 인상된다. 팁 근로자도 8달러에서 10달러로 올라간다. 근로자를 모집하는 기업은 반드시 시급 혹은 주급 등의 범위를 공지하도록 했다.

또한 근로자 면접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기존 직장에서 받았던 임금 수준을 묻지 못하도록 했다.

평가 및 유급휴가 재원 마련을 위한 임금 공제 비율이 0.26%에서 0.75%로 올라간다.

김옥재 기자



## 국립 발레단 갈라 공연 개최

오는 10일 케네디 센터서 워싱턴 한국 문화원 주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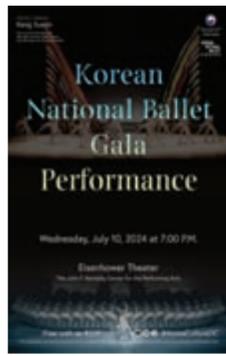
〈활〉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공연에는 미국 유명 발레단 수석 무용수로 활동 중인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 서희 그리고 워싱턴발레단 이은원이 특별 출연하여 각각 한 작품씩

한·미 문화교류 특별공연 ‘국립발레단 갈라 공연’이 워싱턴 한국문화원(원장 김정훈) 주최로 오는 10일(수) 오후 7시 워싱턴 DC 소재 케네디 센터 내 아이젠하워 극장에서 열린다.

공연에는 국립발레단 및 미국 유명 발레단에서 활동 중인 한인 수석 무용수 등이 참가해 수준 높은 한국의 공연예술을 선보인다.

특히 세계적인 발레리나이자 국립발레단 예술 감독인 강수진 지도하에 〈백조의 호수〉 그랑 파드되, 〈호이랑〉 파드되, 〈Quartet of the Soul〉, 〈계절:봄〉, 〈해적〉 파드트루아,



을 더해 총 8개의 프로그램이 계획됐다.

한편 국립발레단은 1962년 창단된 대한민국 최초의 직업발레단으로 한국발레 역사를 상징하는 단체다.

수많은 유명 무용수, 안무가 및 예술 감독의 작품으로 해외에서도 위상을 인정받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원 홈페이지(<https://washingtondc.korean-culture.org/ko>)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김윤미 기자

## 제27차 북미주KCBMC 대회 폐막

연방정부 ‘조기 경제교육 강조’

미 전역과 한국에서 300여명의 기독교 실업인들이 모여 거행한 제27차 북미주KCBMC 대회가 지난 29일 폐막했다.

버지니아 폴스처치 메리어츠 페어뷰 파크 호텔에서 진행된 대회는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한

다’는 비전으로 각종 세미나, 기도집회 등 다양한 주제의 세션이 사흘간 진행됐다. 특히 ‘Life on Life’라는 테마로 진행된 다양한 회원들의 ‘생활 속 신앙 간증’ 세션은 참석자들의 큰 공감과 울림을 이끌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제16대 김성기 북미주 KCBMC 총연회장이 취임했다.

신임 김성기 회장은 “기독 실업인으로서 ‘성령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헌신과 충성을 다하고, 회원 여러분의 발전과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회장은 워싱턴 지역에서 강고은 부회장(펀드레이징 총연대회팀 리더)과 김형주 부회장(지회 양육 소통 평가팀 리더)을 임명하는 등 16대 임기의 본격적 시작을 알렸다.

박세용 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오미!**  
보통에 관한 일은 선택 - 오미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광고는 따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CarePeople Home Health, Inc.**  
Korean

**케어피플 홈헬스**

CarePeople.net  
571-297-4747 (VA)  
301-966-7000 (MD)

RN 간호사 구함  
이력서: carepeopleinfo@gmail.com

CarePeople.net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7/8 ~ 7/12 → 전화 예약 필수!

서비스 지역: 애난데일, 알링턴, 센터빌, 리치몬드, 뉴포트뉴스  
북 버지니아와 남 버지니아 / 메릴랜드 지역

Centreville (Main Office)	Annandale (사랑방)	Annandale (V)	Richmond	Gaithersburg (MD)
14631 Route 29 (Lee Hwy) #401 Centreville, VA 20121	4306 Evergreen Ln. #104 Annandale, VA 22003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11212 Oakstone Dr. Glen Allen, VA 23060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 “무릎 꿇은 고씨 머리채 당겨 총격한 듯”

## 고보임씨 피살사건 미스터리

### ⑤ 앤서니 존슨 수사관 인터뷰

44년 경력의 샌디에이고카운티 검찰청 소속 앤서니 존슨 수사관은 20여년간 미제 사건을 담당해온 전문가다.

그는 약 2개월 전 지문 재검색 결과를 통해 고보임씨 피살사건 용의자를 확인하고 30여년 만에 케이스를 다시 오픈했다.

용의자를 조회했을 때 이미 사망한 상태였지만 존슨 수사관은 유가족과 커뮤니티를 위해 수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본지는 샌디에이고에서 존슨 수사관을 직접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30여년 만에 용의자를 찾았다.

“5년, 10년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했던 일이다. 지난 2012년 차세대 범죄 데이터망(Next Generation Identification·NGI)이 나오고 점차 발전하면서 최근에는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 인식의 정확도를 정말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됐다. 우리는 샌디에이고 경찰국 지문 수사관을 통해 이 지문들을 확인했고 용의자 원동호(영어이름 밥)를 발견했다.”

-유력한 용의자인데 이미 사망한 상태다.

“그렇다. 재수사를 시작했을 때까지만 해도 용의자가 사망한 상태인지는 몰랐다. 하지만 사건을 종결시키기에는 의혹이 많았다. 또한 남은 유가족과 커뮤니티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며 살인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하고 싶었다.”

-용의자와 피해자는 무슨 관계인가.

“아직 두 사람 간의 연관성을 하나도 찾지 못했다. 수사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사건 당시 용의자가 피해자의 차를 운전한 것으로 추정되며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따라갔던 것 같다. 차량 백미러에서 용의자의 지문이 나왔고 운전석이 키 5.2피트 사람 체형에 맞춰져 있었는데 원씨의 키가 5.2피트다. 또한 피해자가 마치 상대편을 알고 있는 것 같았고 겁에 질린 모습이 아니었다는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서로 알고 있는 사이였을



앤서니 존슨 수사관이 수사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샌디에이고 지사]

가능성도 있다.”

-처형식 총격 살인이었나.

“일단 부검 결과를 보면 총알이 피해자의 뒤통수에 들어갔다가 얼굴로 튀어나와 안경이 깨졌다. 시신이나 탄피, 깨진 안경의 위치로 볼 때 피해자는 자동차 바닥에 있었던 것 같다. 무릎을 꿇고 있었을 수도 있다. 고씨의 몸은 운전석 방향을 향하고 있었고 용의자는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부에 총이 닿은 채로 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용의자는 총격 후 상자와 신문지로 시신을 덮었고 고씨의 차량 열쇠를 가지고 고현장을 떠났다.”

-살인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나.

“용의자가 사건 1년 전에 총기(Sundance Model A-25, 시리얼넘버:18953)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그만큼 장기간 계획한 살인은 아닌 것 같다. 살인 의도가 있었다라면 왜 굳이 자신의 총을 사용했을까라는 의문도 남아있다. 또 경찰의 추적을 염두에 뒀다면 총을 함부로 버리진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누군가는 가지고 있을 것 같다. 만약 용의자 원씨의 총을 회수해서 시험해볼 수 있다면 사건을 결정짓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할 것 같다.”

-이 사건의 특이점은 무엇인가.

“당시 경찰청의 탐문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고씨와 주변 인물 간에 상당히 복잡한 남녀관계가 있었다는 루머가 기록되어 주목하고 있다.

-용의자 원씨를 아는 사람 없나.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하고 있는 원

씨의 아내와 얼마 전 연락이 닿았다. 서류상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지난 1998~1999년 사이 원씨가 미시간으로 떠났을 때부터 따로 살았다. 원씨의 아내의 피해자 가족을 전혀 알지 못했고 도움이 될만한 정보는 얻지 못했다.”

-앞으로 수사방향은.

“원씨와 고씨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배경, 군 기록 등을 한국에 요청하려고 한다. 고씨와 밀접한 관계로 알려진 오필훈씨의 남동생이 한국의 특수부대에 있었던 것으로 안다. 오 형제와 원씨의 관계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수사에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사건에 대해 아는 한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다. 이 사건은 현존하는 미제사건 중에 오래된 케이스는 아니다. 하지만 당시 연루된 인물들이 고령으로 죽은 경우가 많고 말소된 기록들이 많다. 원씨가 과거 무슨 일을 했는지, 어디서 근무했는지 등 알고 있는 한인들이 있다면 꼭 제보해달라.”

>제보:Anthony.Johnson@sdcda.org

/(619) 756-5230 (앤서니 존슨 수사관)

샌디에이고=서정원 기자, LA=정수아 기자

# “이중섭 그림, 타일에 베낀 위작”

## LA미술관 전시 초유의 사건

### ‘한국의 보물들’ 작품집 취소

LA카운티미술관(LACMA)가 지난 2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시했던 체스터 장 박사 기증 한국 미술품 일부가 위작일 가능성을 인정하고 계획된 작품집 발간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LACMA는 지난 2021년 남가주 한인 커뮤니티의 사회공헌활동가인 한국계 미국인 체스터 장과 그의 아들 캐머런 장으로부터 회화, 도자, 수석 등 100점을 기증받았고, 이 중 35점을 골라 지난 2월25일부터 6월30일까지 ‘한국의 보물들: 체스터&캐머런 장 컬렉션’전을 열었다.

전시된 작품에는 박수근의 ‘와이키키’, 이중섭의 ‘기어오르는 아이들’과 ‘황소를 타는 소년’이 포함됐다.

전시 시작 직후 한국의 중앙일보는 박수근, 이중섭의 작품들이 위작으로 의심된다고 보도했다. 위작 논란 제기 후 박수근연구소와 한국화랑협회, 그리고 LA 한국문화원이 LACMA에 작품 관련 질의서를 보냈다.

이에 따라 LACMA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고 한국의 전문가를 초청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김선희 전 부산시립미술관장이 전시 준비 과정에서 한국미술 전문가들을 통해 검토하지 않았는지 묻자 리틀 부장이 “한국의 공립미술관장 A 씨에

게 보여줬고, ‘좋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A 관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리틀 부장이 지인을 통해 ‘미술관을 보고 싶다’고 해 지난해 말 처음 만났고, 이 자리에서 본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근대 회화 이미지를 보여줘서 ‘더 연구해 보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LACMA 마이클 고반 관장은 “기증자에 대한 예우로 시작된 전시였다. 계획된 작품집 발행은 취소해야겠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말했다.

LACMA는 지난 3월4일 특별 강연회를 열어 박수근, 이중섭 그림을 과학적인 방법과 자료조사를 통해 진품으로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LACMA에 1950년대 초반 이중섭이 타일에 그린 ‘기어오르는 아이들’이라는 설명과 함께 전시된 그림. ‘장대놀이 하는 아이들’을 같은 크기 타일에 베끼는 과정에서 서로 방향이던 그림이 가로가 됐고, 서명도 없어졌다(왼쪽 사진). 이중섭 카탈로그 레조네(전작 도록)에 수록된 ‘장대놀이 하는 아이들’. 2017년 서울옥션 경매에 출품됐다(오른쪽). 사진= [중앙포토, 서울옥션]

이에 따라 권위있는 미술관인 LACMA가 위작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

며, LACMA의 신뢰도와 체스터 장 박사의 기증품 가치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근영, 박경은 기자

# DARCARS®

## LEXUS OF SILVER SPRING

### 실버스프링 렉서스에서 최고의 딜을 만나십시오.

### Huge Selection of New and Certified Pre-Owned Vehicles

SALES | 301-234-8525 SERVICE | 301-234-8583 PARTS | 301-235-1016

2505 Prosperity Terrace, Silver Spring, MD 20904

DARCARS.com

# 미 항공엔진 심장 파고든 한화... 커지는 독자 엔진의 꿈

(코네티컷주 항공 앨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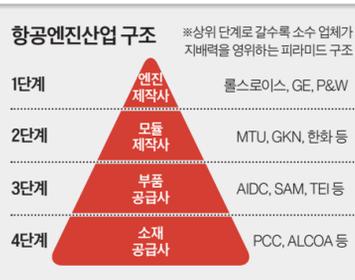
## 한화에어로 미 법인 가보니

2019년 3억 달러 들여 미 기업 인수  
세계 민항기 엔진부품 제조 중심지  
소재·부품·엔진 밸류체인 구축 목표  
“창원·부산에 한국판 항공 앨리 조성”

지난달 25일 미국 코네티컷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미국법인(HAU) 체셔(Cheshire) 사업장. 뉴욕에서 차로 약 2시간을 달리자 넓은 부지에 거대한 공장 건물이 나타났다. 안으로 들어가니 ‘위잉 위잉’ 무거운 기계음이 공장을 가득 채웠다. 2만6454㎡ 면적(약 8000평)의 이곳은 HAU 직원 280명이 세계 민항기에 들어갈 항공 엔진 부품을 제조하는 한화의 핵심 생산 기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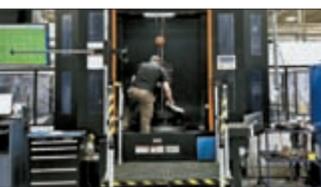
네이트 마나미 HAU 사업장장은 “현재 운항 중인 거의 모든 민항기에 HAU에서 만든 부품이 들어가 있다”며 “디스크·블레이드·회전축 등 엔진 회전부에 사용되는 부품부터 엔진 케이스처럼 고정된 부품, 엔진 제조용 공구까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HAU는 체셔 사업장 외에도 뉴잉턴·클래스톤베리·이스트원저에도 부품 사업장을 두고 있다.

코네티컷주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미국법인 매출

※2019년 매출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미국 법인 출범 이후인 10-12월 기간에 해당하는 수치



지난달 25일 미국 코네티컷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미국법인(HAU) 체셔 사업장에서 직원이 항공 엔진 부품 중 하나인 '케이스'를 가공하고 있다. [사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91번 국도 주변엔 수백 개의 항공 엔진 제조 업체가 밀집해 있다. 미국 항공 엔진 산업의 중심지인 이곳은 ‘항공 앨리(Aerospace Alley)’로 불린다. 세계적인 엔진 제작사 프랫&휘트니(P&W)·제너럴일렉트릭(GE)을 중심으로 수백 개의 부품 공급사들이 모여들며 거대한 산업 단지를 형성했다.

2022년 기준 코네티컷 항공 앨리 회

사들이 창출한 일자리는 약 1만5500개다. 이 지역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66억 달러이며, 방산 및 항공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안팎이다. 제스카 테일러 코네티컷 항공부품협회 대표는 “130여개 이상의 엔진 부품 제조사들이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엔진 완제품을 생산하는 P&W의 존재가 산업 생태계 조성에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19년 9월 약 3억 달러를 투자해 항공 엔진 부품 회사 이닥(EDAC)을 인수하고 HAU를 출범했다. HAU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 2521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사업 규모를 확대해 2032년까지 항공 엔진 사업 부문에서 매출 2조9000억원을 달성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판 항

공 앨리’ 조성을 꿈꾸고 있다. 국내에서 ‘소재-부품-엔진’으로 이어지는 밸류 체인을 구축하는 게 목표다. 핵심은 독자적으로 항공엔진을 개발하는 것이다. 지난 4월 2030년대 중후반까지 1만 5000파운드급 첨단 항공엔진을 독자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KF-21 보라매 전투기에 탑재된 F414와 같은 수준의 엔진이다.

이 과정에서 경남 창원과 부산 지역 소재·부품 회사 200여 곳과 협력해 항공 엔진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항공 엔진은 전투기 뿐만 아니라 민항기와 선박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 기술”이라며 “독자 항공엔진을 기반으로 창원 사업장을 대한민국 항공 앨리의 중심지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코네티컷 항공앨리는 기업·대학·정부 간 협력을 통해 조성됐다. 2014년 주 정부는 지역 내 주요 항공 기업 유출을 막기 위해 항공산업 재투자법을 제정했다. 코네티컷 소재 항공 기업이 1억 달러(약 1381억원)를 재투자하면 대규모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게 골자다. P&W는 주 정부와 약 2년간 협상 끝에 2017년 항공 엔진 연구 시설에 5억 달러(약 6909억 원) 투자를 발표했다.

체셔=오삼권 기자

## 아마존, 초저가 섹션 만든다

중국 테무·쉬윈에 ‘맞붙’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자사 사이트에 20달러 이하의 초저가 상품을 판매하는 섹션을 만든다. 중국의 대표 저가상품 플랫폼인 테무와 쉬윈을 겨냥한 조치로 분석된다.

최근 경제 매체 CNBC 방송에 따르면 아마존은 사이트 첫 화면에 브랜드가 없는 다양한 품목의 섹션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 품목들은 대부분 20달러 이하의 초저가상품으로 구성된다.

아마존은 이 서비스를 통해 9~11월 이내에 이용객들에게 배송하는 것을 목표로 주문 상품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배송할 예정이다. 아마존이 언제 이 초저가 섹션을 출시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올가을부터 상품 등록을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CNBC 방송은 아마존의 이런 시도가 중국 업체 테무와 세인의 공습을 막기 위한 아마존의 가장 공격적인 시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테무와 세인은 최근 2년간 의류, 전자제품, 가정용품 등에 대한 초저가 판매를 통해 미국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 차값 하락에도 유지비 부담에 구입 주저

자동차론 저점대비 4%p 올라  
차 보험료도 평균 22.6% 인상

자동차 가격은 내려갔지만 높아진 유지비용 때문에 자동차 판매가 부진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높아진 차량 유지비용 때문에 자동차 가격이 내려갔음에도 자동차 판매량과 오토론 신청 건수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구매 후 드는 자동차 페이먼트, 보험료, 연료비, 수리비 등 유지비가 급증한 탓에 섣불리 구매를 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차와 중고차 가격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핵심 부품 조달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차량 인벤토리 부족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차량 가격이 치솟았고 웃돈을 주고 자동차를 구매하는 일도 많았다. 이후 공급망이 정상화되면서 서서히 자동차 가격은 내림세를 보이지만 유지비는 오히려 더 상승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지비 상승 원인으로는 크게 오른 이자율이 꼽혔다. 2022년 4월 이후로 오토론의 이자율은 가파르게 상승했고 가장 낮을 때와 비교해 4%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평균 신차 가격인 5만1200달러를 오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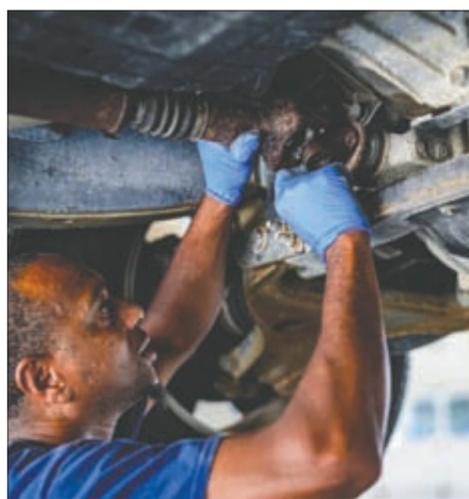
론으로 구입 시 월 100달러 정도 돈을 더 내야 한다는 의미다.

급증한 차량 보험료 또한 유지비 급등 원인이다.

연방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차량 보험료는 4월 한 달에만 1.8%가 올랐고 2024년 들어서만 22.6% 올랐다. 이는 역대 가장 가파른 상승세다. 보험료는 물가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2021년 초와 비교했을 때 50% 이상 비싸졌다.

보험료 상승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며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왔다. 뱅크레이트의 샤넬 마틴 애널리스트는 “지난 몇 년간 차량 부품 가격과 수리 비용이 올라서 자동차 보험료 역시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조원희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융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 상업융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 ✓ 가치 극대화 및 성공적인 매각 목표
- ✓ 입주전 전체적 통합 서비스 제공
- ✓ 순조로운 임대차 계약 및 갱신 업무
- ✓ 최적의 입지와 컨설팅 제공
- ✓ 최신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 및 분석
- ✓ 맞춤형 주택 매입과 최고의 주택 매각

**승경호 추천 매물**

<p><b>스시 식당</b></p> <p>알링턴 버지니아, 판매가: 50만 1900 SF, Rent 8900 SF 연매상 \$1,058,000</p>	<p><b>버지니아 상가건물</b></p> <p>3백10만불, 1.8에이커 Cap Rate 7%, 임차 5개 연순수의 \$218,000</p>	<p><b>디시 유명 델리</b></p> <p>주인 없이 운영 판매가 55만불 정부임주 건물 1층 순수의 = 주인운영 없이 1만불</p>	<p><b>Beer &amp; Wine Shop</b></p> <p>주2만불수입 렌트 \$7200+Cam, 2,300SF 몽고메리카운티, 메릴랜드 조건부임대계약 50만불</p>	<p><b>상가</b></p> <p>맥클린, 단독건물 4백5만불, 6,000 SF</p>
<p><b>식당 자리</b></p> <p>4,675 SF, 임대 메릴랜드 락빌</p>	<p><b>단독 건물</b></p> <p>에난데일 최고의 상권, 2500 SF 식당, 카페, 맥주 전문점하면 좋은 자리 임대 문의 바람</p>	<p><b>사무실</b></p> <p>에난데일, 1200 SF 사무실, 병원적합, 35만불</p>	<p><b>Beer &amp; Wine Shop</b></p> <p>주1만8천불수입, 렌트 \$7200 2400 SF, 알링턴 버지니아 조건부 임대계약, 35만불</p>	<p><b>상가</b></p> <p>비엔나, 버지니아 상가매매 연순수의 52만불, 8백만불</p>
<p><b>창고</b></p> <p>전기시설 완벽한 창고자리임대 9000 SF, 헌튼, 버지니아</p>	<p><b>사무실</b></p> <p>워싱턴 디시, 교통 좋은곳 사무실 임대하실 회사찾습니다</p>	<p><b>콘도</b></p> <p>방2개, 화장실2개, 차고1개 있습니다 메트로근처, 웨그맨옆 관리해드립니다 매매가 49만불</p>	<p><b>이 자리에 광고받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b></p>	

주 택

상가/사무실/아파트/공장/창고

투자 컨설팅

사업 체

주재원 렌딩 서비스

공장 / 사무실 / 창고 설립

**703.928.5990 승경호**

k@dwellwashington.com

**ONE REALTYONEGROUP CAPITAL**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THE SCHNEIDER TEAM**

www.dwellwashington.com

## 시진핑, 내달 SCO 정상회의 참석 푸틴과 1개월여만에 또 회동

한반도 정세 등 논의 전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달 2~6일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30일 “시 주석이 2~6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리는 SCO 회원국 정상 이사회 제24차 회의에 참석한다”며 “또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의 초청으로 두 나라를 국빈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이 SCO 정상회의 참석을 공식화함에 따라 지난 5월 16일 베이징 정상회담에 이어 1개월여 만에 또다시 중러 정상 회동이 이뤄지게 됐다.

앞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5월 중러 정상회담 후 시 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7월 3~4일 SCO 정상회의 기간에 다시 만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푸틴 대통령이 이달 24년 만에 북한을 직접 방문해 사실상의 자동 군사 개입 등이 포함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며 북러 밀착이 가속화한 가운데 정부 차원의 공식 논평을 거부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중국이 북러간



지난달 베이징에서 만난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AP=연합뉴스]

초밀착 속에 서방으로부터 제기된 북중러 밀착 구도와 대북 영향력 감소 가능성 등에 미묘하게 불편한 반응을 보인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따라서 이번 중러 정상 회동에선 우크라이나 전쟁 등 해를 넘긴 이슈뿐만 아니라 북러 협력 문제와 한반도 정세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두 정상은 작년 3월(모스크바)과 10월(베이징), 올해 5월(베이징) 양자 회동을 포함해 지금까지 40차례 넘게 만나면서 ‘끈끈한’ 관계를 이어왔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승리와 지난달 취임식으로 집권 5기를 시작한 뒤 첫 해외 일정으로 중국행을 선택했다.

## 공화당 부통령 후보 경쟁 막판 치열

“트럼프 전 대통령 눈에 들자”  
‘슈퍼리치 후광’ 이용 경쟁

올해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가 되려는 정치인들이 초고액 자산가인 ‘슈퍼리치’의 후광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나 선거전에서의 전투력 등이 러닝메이트의 자격요건으로 거론됐지만, 실제로는 대규모의 정치현금을 끌어모을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30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낙점을 받기 위해 재계와의 인맥을 부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톱 코트 상원의원(아칸소)은 억만장자 스티브 윈의 적극적인 천거에 힘입어 최근 공화당 부통령 후보 경쟁에서 급상승하는 분위기다.

카지노 업계의 거물이었던 윈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다.



특히 윈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 다른 억만장자들에게 트럼프 캠프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돕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도 러닝메이트 선정 과정에서 윈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다.

공화당 부통령 후보군에 오른 다른 인사들도 재계 인맥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IT 사업으로 거부가 된 더그 버검 노스타코다주 주지사도 재계의 지지를 받는 인물이다.

억만장자 투자가 톰 시벨은 최근 트럼프 캠프에 50만 달러를 트럼프 캠프에 보냈다. 버검 주지사가 부통령 후보로 거론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또한 버검 주지사의 스탠퍼드대 경영전문대학원(MBA) 동기인 디 보이스 전 버거킹 회장은 10만 달러를 트럼프 캠프에 보냈다.

보이스 전 회장은 “버검 주지사가 부

통령 후보로 지명될 경우 더 많은 정치 자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개로 버검 주지사는 자신이 부통령 후보가 될 경우 선거운동에 사재를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기도 했다.

벤처투자업계 출신인 J.D 밴스 상원의원(오하이오)도 재계 인맥을 총동원하고 있다. 밴스 상원의원은 지난달 실리콘밸리의 정치자금 모금행사에서 1천200만 달러를 수확하면서 자금 동원 능력을 증명했다.

공화당 유일의 흑인 상원의원인 팀 스콧(사우스캐롤라이나)도 지난주 워싱턴에서 자신의 정책그룹을 지원하는 재계 인사들과 회합하는 등 공격적으로 재계 인맥을 과시하고 있다.

스콧 상원의원은 오라클 창업자 래리 엘리슨과 헤지펀드계의 거물 폴 싱어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NYT는 스콧 상원의원을 지원하는 재계 인사들도 그가 올해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 AI 데이터센터용 전기 확보 시급한 테크업계, 원전 주목

인공지능(AI) 붐으로 데이터센터 가동을 위한 전력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아마존을 비롯한 미국 기술 기업들이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 북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클라우드 컴퓨팅 업계 1위인 아마존웹서비스(AWS)가 미 동부 해안의 원전에서 직접 전기를 공급받기 위해 원전업체 컨스텔레이션에너지와의 계약에 근접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AWS는 지난 3월 이와 별개로 원전으로 돌아가는 펜실베이니아주 소재 데이터센터 한 곳을 6억5천만 달러에 사들이기도 했다.

미국 원전 가운데 3분의 1가량을 소유한 업체들이 새로운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을 두고 기술 기업들과 논의 중이라는 추산도 나온다.

이러한 방식을 쓸 경우 새로운 전력망 인프라가 불필요한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 기간을 몇 년 단축할 수 있으며, 전기요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송배전 비용도 피할 수 있다.

WSJ은 하지만 기술 기업들이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해 새로운 청정에너지를 확보하기보다는 기존 전력 자원을 전용하려 하며, 이는 다른 전력 사용



아마존웹서비스의 데이터센터 [로이터 연합뉴스]

자들의 비용 부담을 늘리고 저탄소 목표 이행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 업계의 원전 의존도 확대에 따라 경제발전, 전력망의 신뢰성, 비용 및 기후 목표 등과 관련해 긴장이 고조된다는 평가도 있다.

AWS가 사들인 펜실베이니아주 소재 데이터센터는 최대 960MW(메가와트) 규모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수십만 가구의 전력 수요와 맞먹는 규모다.

엑셀론 등 전력 업체는 이 데이터센터 매입으로 1억4천만 달러 규모의 비용이 다른 전력 이용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면서 미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에 청문회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데이터센터가 전력망에 무임 승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술 기업들의 전력 수요 급증에 따라 한동안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원전 기업들의 운명도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내 원전 산업은 1990년대 과잉 건설 이후 20년간 어려움을 겪어왔고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분위기 속에 문을 닫는 업체들도 나오는데, 현재는 거의 탄소 배출 없이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원전을 통한 전력 공급에 모든까 지 지불하려 하기 때문이다.

미국 내 최대인 14개 원전을 소유 중이고 미국 전체 원전 전력 생산의 20% 이상을 담당하는 컨스텔레이션에너지 주가는 올해 들어 70% 이상 올랐다.

다른 전력 업체 비스트라 주가는 올해 120% 넘게 올랐으며, 업체 관계자는 “고객사들이 가능한 한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 노동시장 냉각, 하반기 증시에 악재 가능성

5월 실업률 4.0% 도달

그동안 건조한 흐름을 보였던 미국 노동시장이 하반기에 냉각될 경우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국 경제매체 마켓워치는 1일 “미국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빨리 식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구직이 어려워지면 상반기 고공행진을 벌였던 증시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평가했다.

주요 주가지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가 상반기에 14.48%나 상승한 가운데, 하반기를 맞이한 미 증시는 이번 주 발표될 미국의 6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과 실업률 지표를 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한때 3.4%로 내려갔던 미국 실업률은 지난 5월 전월치와 전문가 예상치(3.9%)보다 높은 4.0%를 기록했다. 미국의 실업률이 4%까지 오른 것은 2022년 1월 이후 처음이었다.

찰스슈와브의 케빈 고든 수석 투자

전략가는 실업률이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다시 낮아지기는 매우 어렵다고 우려했다. 뱅크레이트의 마크 헬릭 선임이코노미스트는 상반기에 월평균 2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면서, 6월 고용 상황에 대해 실업률이 꾸준한 흐름을 보이는 반면 고용은 약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시장이 실업률 4% 수준에서 지속 가능한 균형 상태를 유지할지, 혹은 기존보다 실업률이 대폭 오른 뒤 침체가 닥쳤던 역사적 전례를 따를지 문제라는 것이다.

연준은 기업들이 고금리 상황에서 해고 대신 구인하지 못한 일자리를 없애는 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봤으며, 현재까지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임금 상승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현상)도 완화되고 있다.

다만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가 지난 1월 “이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어느 수준이 되면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 퍼스트 홈케어,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종합 간병서비스!

“간병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을 퍼스트로 모십니다.”

- ♥ 약 챙겨드리기
- ♥ 이동 보조 산책 또는 운동 도와드리기
- ♥ 간단한 집안일 도와드리기
- ♥ 식사 도와드리기
- ♥ 청결 유지 및 침상 정리
- ♥ 병원 예약 및 동행(필요시) 해드리기
- ♥ 말동무 해드리기
- ♥ 우편물 정리 및 각종 고지서 납부 도와드리기
- ♥ 정기 간호사 방문 및 건강상태 확인 등등

롱텀케어,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상담 및 신청 도와 드립니다

### 직 원 모 집

퍼스트 홈케어에서는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섬기며, 내 가족처럼 대할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간병인:00명 / 코디네이터:00명

퍼스트 홈케어에서 본인 능력을 무한대로 펼치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 보세요.  
퍼스트 홈케어가 있습니다.

\*퍼스트 홈케어 위치: 센터빌 스파월드 건너편 3층 메디컬 빌딩

**Main Office** 13890 Braddock Road, #304A, Centreville, VA 20121

T. 571-549-6789 / F. 571-300-7005 / E. homecare@firsthco.com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 메디케어

###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 진료내용

####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 진료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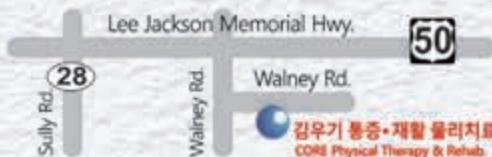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육이완치료  
전기치료



####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예약환자 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 반이민 내세운 프랑스 극우, 창당 52년 만에 권력 중심에

악명 높던 RN, 탈악마화 전략 통해  
고물가·반이민 정서 업고 약진  
마크롱의 조기총선 승부수, 자충수로  
르펜 “부패한 권력 끝내려는 열망”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총선 1차투표에서 참패한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왼쪽 사진)과 창당 52년 만에 1위를 차지한 극우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 총선 2차투표는 오는 7일 실시된다. [AP·로이터=연합뉴스]



프랑스 조기 총선 1차투표 개표 결과 극우정당 국민연합(RN)이 득표율 1위를 기록했다. 1958년 제5공화국 성립 이후 반이민주의를 내세운 극우정당이 총선 1차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7일 2차투표에서도 1위를 지키려면 RN은 창당 52년 만에 총리를 배출해 권력의 중심에 입성하게 된다.

최근 극우 확산이라는 동병상련을 겪고 있는 유럽연합(EU) 내 다른 국가들은 프랑스 총선의 후폭풍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프랑스는 독일과 함께 EU의 양대 국가다. 이런 프랑스에서 ‘통합된 유럽’에 부정적인 RN의 국정 참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과 맞물려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이민, 환경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미국·EU로 묶인 기존 서방 동맹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일 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총선 1차투표에서 RN은 득표율 33%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좌파 연합체인 신민중전선(NFP)이 2위(28%)에 올랐다.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여당 르네상스를 비롯한 범여권(양상블)은 3위(20%)에 그쳤다. 이번 총선 투표율(66.7%)은

2022년 총선 1차 투표율(47.5%)보다 무려 19.2%나 높아 뜨거운 선거 열기를 보여줬다.

1차투표만으로 당선자가 확정된 지역구는 전체 577곳 중 76곳(13.2%)으로, RN은 39명, NFP는 32명, 양상블은 2명이 각각 당선됐다. 2022년 총선에서는 5명만 1차투표에서 당선이 결정됐다.

프랑스는 총선 1차투표에서 등록 유권자의 25% 이상이 참여해 1위 후보자가 총투표수의 50% 이상을 얻어야 당선이 확정된다. 50% 이상을 얻

은 후보자가 없을 땐 12.5% 이상의 지지를 얻은 후보자끼리 2차투표를 치른다.

RN의 실질적 지도자인 마린 르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가 목소리를 냈다”며 “유권자들이 마크롱 7년의 경멸적이고 부패한 권력을 끝내려는 열망을 투표로 명확히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슬기가 아니며 폭력적인 극좌 정당의 손에 프랑스가 넘어가는 걸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성명에서 “높은

투표율은 이번 선거의 중요성과 정치적 상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프랑스인의 열망”이라며 “2차투표에서 RN에 맞서 민주적·공화적 결집이 필요한 때가 왔다”고 밝혔다.

일간 르피가로는 1차투표 최종 득표율을 기준으로 RN이 240~270석, NFP는 180~200석, 범여권은 60~90석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 총선에서 이들은 각각 89석, 131석, 245석을 얻었다. 2년 사이 극우 세력이 최대 3배까지 세를 키운 것이다.

2차투표의 최대 변수는 유권자들의 극우 정당에 대한 견제 심리와 후보 3명 이상이 대결하는 선거구의 후보 사퇴 여부다. 현재 2차투표에서 3차 대결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에선 극우 정당을 견제하려는 NFP와 양상블 후보 중 한 명이 사퇴하고 다른 편에 표를 몰아줄 수 있다.

실제 NFP와 양상블은 3위로 결선에 올라간 소속 후보의 사퇴를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양상블 소속인 가브리엘 아탈 총리는 “극우세력이 권력의 문턱에 와 있다. 우리 목표는 2차투표에서 극우의 당선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NFP에 속한 극좌 정당 골목하지않는프랑스(LFI)의 장뤼크 멜랑송 대표도 “2차투표에서 RN에 맞설 유일한 대안은 NFP”라며 표결집을 촉구했다. CNN은 “양상블과 NFP가 개별 지역구에서 후보 사퇴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를 놓고 일주일 간의 정치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

망했다. 2차투표 결과 만약 RN이 제1당을 차지하면 프랑스에서는 27년 만에 역대 네 번째 동거 정부가 탄생하게 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프랑스 전후 역사에서 세 번의 동거 정부가 있었지만 이렇게 정반대의 견해를 가진 정당이 동거한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1972년 창당한 RN은 오랜 기간 인종차별주의 등으로 악명이 높았다. 하지만 RN은 당의 급진적 이미지를 완화하는 이른바 ‘탈악마화’ 전략에 나서 반이민주의는 고수하되, 반유대주의와는 거리를 두고 공공서비스 확대 등을 제안해 외연을 확대했다.

르피가로는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른 요인이 ‘물가’와 ‘이민’이었다고 짚었다. RN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반이민 정책을 내세웠고, 감세 정책, 유럽연합에 대한 예산지원 삭감, 정년 연장 환원 등을 통해 기존 지지층은 물론 여성과 청년층의 표심을 모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극우의 득세를 막기 위해 조기 총선 카드를 던졌던 마크롱의 승부수가 오히려 극우가 더 빨리 권력의 중심에 진입하게 하는 자충수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마크롱은 2022년 총선 이후 안정적인 연정을 구성하지 못해 좌절감을 느꼈는데, 이제 상황은 훨씬 더 나빠 보인다”고 전망했다.

백익현 기자

## 35세 총리 가고 29세 총리 오나...바르델라 급부상

총리 된다면 프랑스 역대 최연소  
16세 입당...틱톡 팔로어만 170만명  
“중요한 결정엔 르펜 자문받을 듯”

프랑스 조기 총선 1차투표에서 국민연합(RN)이 승리하면서 올해 29세인 조르당 바르델라 RN 대표의 총리 등극이 가시화됐다. 실제 총리에 임명되면 프랑스 역사상 최초의 20대 총리이자 최연소 총리가 된다. 앞서 최연소 총리 기록을 세웠던 가브리엘 아탈(35) 현 총리는 퇴장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바르델라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승리 연설을 통해 “모든 프랑스 국민을 대신하는 총리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바르델라는 1995년 파리 교외 생드니에 위치한 공동 주택단지에서 이탈리아 이민자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이혼 후 홀로 바르델라를 키웠다. 그는 종종 자신을 “마약과 급진적인 이슬람교로 점철된 거친 교외 지역의 생존자”라고 묘사해 왔다. 그렇다고 바르델라를 ‘가난을 극복한 자수성가형 정치인’으로 불러선 안 된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 음료 유통사업을 했던 아버지는 상대적으로 부유했고, 아버지의 도움으로 가톨릭 사립학교에서 부르주아 교육을 받았다.

그는 16세 때 RN의 전신인 국민전선(FN)에 가입하면서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환절한 키와 잘생긴 얼굴, 양

복 차림에 젊은이들이 열광했다. 외국인 혐오와 반유대주의라는 과거를 청산하고 외연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시 마린 르펜 RN 대표는 이런 바르델라를 전격 발탁했다.

19세에 지역위원회의 책임자가 됐고, 이후 당 대변인 등 요직을 거쳤다. 2019년엔 RN을 대표해 유럽의회 선거를 이끌었고, 2022년 RN의 대표로 승승장구하면서 대학도 중퇴한 상태다.

그는 틱톡 팔로어만 170만 명이 넘는다. RN은 그를 젊은 유권자의 환심을 사는 비옥한 토양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게 외신들의 평가다. 바르델라가 총리가 될 경우 신경써야 할 인물은



프랑스 극우 정당인 RN의 대표인 조르당 바르델라가 1일(현지시간) RN 당 본부에 들어서고 있다. 바르델라는 1차 총선 승리 연설을 통해 “모든 프랑스 국민을 대신하는 총리가 될 것”이라며 “프랑스와 프랑스 국민의 위대함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연합뉴스]

르펜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에 앞서 르펜의 자문을 받을 것이라고 유로뉴스는 그가 중요한 정치적 결정 전했다. 박형수 기자

## 방법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신분 문제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오직 전문가만이 귀하의 성공적인 이민 생활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민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모르거나 잘못 해석하여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미국이민의 큰 꿈을 접어야 하는  
기막힌 사연 또한 많습니다.

항상 저의 케이스를 진행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그리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이민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복잡한 이민법, 오직 이민법만을 고집하는  
이재운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Jaewoon Lee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소속 • Attorney At Law  
J.D. (법학박사) • Jaewoon Lee & Associates, LLC

이민생활에서 궁금한 모든 사항을 다양한 시각과  
풍부한 경험으로 이재운 이민 전문 변호사가  
정확하고 확실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Text, **myattorney** to 703-916-1111  
“Text 로 이민상담 신청하세요!”

### 주요업무

- ◆ 취업이민 영주권 (EB2/EB3)
- ◆ 취업 비자 (H1-B)
- ◆ 종교 비자 (R1)
- ◆ 종교 특별 영주권 (R1/I-360)
- ◆ 투자/교역 비자 (E1/E2)

- ◆ 학생 비자 (F1)
- ◆ 주재원 비자 (L1)
- ◆ 시민권 신청 (N-400)
- ◆ 가족 초청 이민
- ◆ 결혼 이민
- ◆ 추방유예 (DACA)

- ◆ 사면준비
- ◆ 이민국 인터뷰
- ◆ 세계 각국 미 대사관 업무
- ◆ 기각된 서류 항소 및 재심사 요청
- ◆ 이민국 노동청 감사 답변
- ◆ 비자 연장 및 신분 변경

[www.jaewoonlaw.com](http://www.jaewoonlaw.com)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Jaewoon Lee & Associates, LLC

T. 703-916-1111 / 703-916-1215  
770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502, Annandale, VA 22003 (예천 길건너편)

Fax. 703-563-6028  
E-mail : lee@jaelaw.com

#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http://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iversal](http://www.facebook.com/LandBUiversal)

# 불편했던 북·러의 기억, 이대로 묻을 수 있을까

지난 6월 19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다. 원래 1박 2일로 예정된 방문이 지각대장 푸틴의 늦은 도착으로 인해 '일 방문'이 되었다는 뉴스도 눈길을 끌었지만, 무엇보다도 역사학자의 눈길을 끄는 것은 1945년 해방부터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까지 소련군의 역할에 대한 푸틴의 발언이었다.

“1945년 소련 군인은 북한 애국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일본 침략자들로부터 해방을 위해 싸웠습니다. 1950~1953년 해방전쟁에서 우리 조상들이 수만 번의 전투 비행을 했습니다.” 푸틴의 발언은 해방과 전쟁이라고 하는 한국현대사의 중요한 두 변곡점에서 소련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 북한을 해방한 소련군

이미 알려진 내용임에도 주목되는 것은 북한이 지위버린 역사를 푸틴이 대중 앞에서 언급했다는 점이다. 많은 언론이 주목한 것은 한국전쟁 과정에서 소련군의 참전 문제였지만, 북한 내부로 좁혀 본다면 소련에 의한 북한 지역 해방에 대한 언급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북한의 역사책에는 소련군의 역할에 대한 서술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1950년대 말까지 소련에 의한 해방을 역사책에 서술했었다. 1958년 북한 역사연구소에서 출간한 『조선통사』에서는 1945년 이후의 역사에 대해 ‘쏘련군대의 북조선 진주’라는 항목으로 시작하면서 “1945년 8월 15일 조선민민은 위대한 쏘련군대에 의하여 장구한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서술했었다.

오일러 “쏘련군대에 의한 조선해방은 조선민민의 역사발전의 새 기원이 되었다”라고 평가하였다. 김일성이 귀국한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채 “쏘련군대의 북조선 진주는 해방된 조선 인민을 제국주의의 새로운 침해보로부터 보호하는 튼튼한 담보로 되었다”고 하여 소련군의 결정적인 역할에 대해 기술하였다.

## 역사책에서 사라진 소련군

소련군의 역할에 대한 서술은 1960년대 이후 점차 북한의 역사책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1964년의 『조선로동당력사교제』에는 소련군의 역할에 대한 서술이 거의 삭제되었고, 이후 1980년 해방35주년 기념 축전에서 소련군의 기여를 언급하였던 사실을 제외하고, 다른 역사서술에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 개시 후 일주일 만에 일본 제국주의가 무조건 항복했다’고 서술했다. 김일성의 회고록에는 자신의 귀국일이 9월 19일이라고 썼다.

이후 북한의 역사책에서 소련군에 의해 38선 이북 지역의 해방과 북한 정부 수립과정에서 소련군의 역할에 대한 언급은 모두 사라졌다. 예컨대 1983년 북한에서의 한국사 연구를 집대성한 『조선전사』가 발간된 직후에 출판된 『현대조선역사』에서는 해방 과정에 대해 “조선의 해방은 김일성이 조직 영도한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승리가 가져다준 위대한 결실이었다”라고만 서술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9일 북·러정상회담에서 새로운 '포괄적전략동반자협정' 서명식 후 악수를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 방북한 푸틴, 북한 해방 및 한국전쟁 때의 소련군의 기여 언급

북한은 1960년대 이후 역사책에서 소련군의 역할 거의 삭제 6·25 때 스탈린, 김일성의 지원 요구에 “탈출 준비하라” 편지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는 국제관계 - 북·러관계 다시 변할 수도

북한은 일본의 패망과 함께 소련군의 진주와 원조에 의한 북한체제의 수립이라는 과정을 삭제해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 지도부의 정통성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다. 마치 베트남전쟁에서 중국군의 역할이 사라진 것과 유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푸틴 대통령의 방문 시 역사 속 소련군이 다시 부활하였다.

## 소련 공군 참전에 대한 CIA 보고서

한국전쟁 당시 소련군의 참전문제는 또 다른 중요한 이슈라 할 수 있다. 한국전쟁의 발발과 관련된 스탈린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미 소비에트 공산정권의 몰락 이후 대부분 알려졌다. 1949년과 1950년 김일성의 소련 방문과 스탈린과의 회담을 통한 전쟁 승인은 한국전쟁이 발발하는 데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 문서와 연구성과를 통해 공개된 것이다.

문제는 푸틴이 언급한 이슈가 전쟁 개전 당시 스탈린과 소련 정부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푸틴은 전쟁 당시 소련뿐만 아니라 미국마저도 숨기려고 했던 소련 공군의 참전을 언급했다.

1951년 3월 30일 자 CIA 문서를 보면 전전에서 러시아의 비행사들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는 전날 미공군 안보부에서 보낸 정보에 근

거한 것이다. 제9육군항공단 소속으로 추정되는 소련공군 비행사들이 한반도의 내부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서에는 1951년 1월부터 소련공군이 참전했고,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논평이 함께 달려 있다.

당시 소련은 무기의 지원 외에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을 대외적으로 알리려 하지 않았다. 참전 조종사들은 계급장이나 휘장이 없는 중국군 군복을 입어야 했고, 통신 과정에서 가급적 러시아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 3차 세계대전을 원하지 않았던 마소

소련군의 참전을 알리지 않으려고 한 것은 미국 역시 마찬가지였다. 1950년 11월 14일 자 주소(駐蘇)미국대사의 문서에는 소련의 참전 징후는 없으며, 중국을 공격의 앞발로만 사용하려고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소련이 아직도 3차 세계대전으로의 확전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결론을 맺었다.

소련 공군이 참전 관련 정보가 올라감에도 1951년 7월 10일의 국무성 극비문서 ‘국가정보평가’ 32호에서는 북한군과 중국군이 사용하는 무기 중 탱크를 제외하고 소련산 무기가 예상보다 많지 않다고 보고했다. 소련이 지원한 전투기에 언급은 나오지만, 한반도 내 소련 공군의 활동은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다.

동년 9월 25일 자의 미국 국가안보회의 비밀문서에서도 소련이 한국에서 점점 더 많은 기술자를 공급하고 있고, 이들이 방공망이나 레이더 장비, 탱크에 대한 자문을 위해 활동하고 있지만, 전투 부대가 직접 한국전쟁에 개입하고 있다는 정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소련군이 유엔군의 안전을 위협할 일이 없다는 것이 이 문서의 결론이었다.

## 역사 속의 불편한 북·러관계

소련뿐만 아니라 미국까지도 소련 공군의 직접 참전에 대해서 외부로 알리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미국과 소련이 모두 한국에서의 전쟁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런 상황이었기에 공산군 측은 정전 협상에서 중립국 감독위원단에 소련을 포함하자는 황당한 주장까지 하였다.

이상과 같이 푸틴이 언급했던 1945년부터 1953년까지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은 북한 역사책에서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울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한국전쟁에서 스탈린의 역할은 언급하지 않은 반면, 북한이 부인해왔던 해방 과정에서 소련군의 역할과 전쟁 당시에는 소련마저도 감추려고 했던 소련공군의 참전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겉으로만 본다면 푸틴의 이러한 선택적 언급에 그다지 큰 의미를 두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 정부가 부인하고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싶어 한 사실을 언급했다는 점, 스탈린 시대의 불균형적 북·러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대신 전쟁에서 양국의 군대가 함께 피를 흘렸다는 혈맹 관계를 강조했다라는 점은 그 의미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 해소되기 어려운 역사적 갈등

그렇다면 푸틴의 이러한 언급으로 북·러 간의 불편한 관계는 모두 사라지는 것인가? 북한은 인천상륙작전 직후 위기 상황에서 소련의 태도를 잊지 않을 것이다. 북한군의 방어망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스탈린은 김일성의 지원 요구에 대해 “귀하는 소련이나 중국으로의 탈출을 준비해야 한다”는 절망적인 편지를 보낸 적이 있다(1950년 10월 13일).

소련은 중국의 참전을 독려하면서 직접 파병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전 협상의 타결을 반대하면서 미국과 중국을 한반도에 잡아두려 했다. 1956년 소련 20차 당 대회 이후 스탈린 격하, 1960년대 역사 왜곡에 대한 북한의 항의, 소련의 대국주의에 대한 북한의 비판 등 역사적 갈등관계에도 주목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정세의 변화로 북·러 간의 전략적 관계가 강화되었지만, 서로에게 불편한 내용을 언제까지 용납할 수 있을지 누구도 알 수 없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북·러관계 역시 우리 하기에 따라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백태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1950년 3월 모스크바에 도착한 김일성 일행. 왼쪽 끝은 박헌영. 2. 6·25전쟁 발발 12일 만에 격추된 야크 전투기. 소련 지원을 위장하기 위해 소련군 표식을 지우고 북한군 마크를 그려 놓았다. [중앙포토]

###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가)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건물 소유하며 비즈니스 하세요! 도매업 / 쇼룸 / 리테일**

**VA Mosaic District 에 위치한 최상의 로케이션 \$1.35M**

3,600 SF 창고 / 리테일 / Warehouse / Industrial Flex, Mosaic District 에 위치한 최상의 로케이션, 495에서 1마일, Drive-in, 천장 18 FT, I-5 Zoning \*추천업종: 도매업, 창고, 쇼룸, 리테일 SBA융자가능

**사평센터 | 창고 리스팅 하실 건물주분들!**

미국 3대 상업용부동산 회사 Marcus & Millichap의 업무경험, 사평센터를 직접 투자하고 관리한 경험으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들이 있습니다!

- 30,000+바이어 Data Base 보유
- YouTube, Offering Memorandum 제작
- Social Media 마케팅, 싸인설치
- 신문광고, Costar Premium 리스팅 광고
- Broker Licensed DC, MD, VA

**FORTUNE**  
Realty Advisors

**미헬신**  
**571.243.5797**

**케빈신**  
**703.395.3128**

# 야당 “대통령 격노 후 해병수사 외압” 김태효 “화낸적 없다”

(안보실 1차장)

용산·거야, 운영위 강대강 충돌  
야당 “02-800-7070 번호 누가쓰냐”  
정진석 “북한도 방송 바, 기밀사항”  
여당 “민주당 아버지가 가르쳤냐”



성태윤 정책실장,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앞줄 왼쪽부터)이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 강정현 기자

대통령실과 거대 야당이 22대 국회 개원 뒤 처음으로 격돌했다. 1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현안 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과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에 등장한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석 발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윤 대통령이 지난해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격노한 뒤 군 내부 조사 보고서에 포함됐던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가 빠진 채 경찰로 이첩되는 등 외압이 가해됐다고 주장한다.

당시 회의에 배석했던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저희 앞에서 화낸 적이 없다. 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한 적이 없다”며 격노설 자체를 부인했다.

고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할 수 있겠는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걸 들은 적이 있느냐”고 재차 묻자 김 차장은 “들은 적이 없고 주제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순직 해병대원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야당은 당시 윤 대통령이 안보실 회의가 끝날 무렵,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168초 동안 통화한 유선전화(02-

800-7070)가 “대통령실 어느 방에서 쓴 전화냐. 회선 재배치가 됐다면 증거인멸”이라고 따졌다.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국가안보와 관련한 사안으로 말씀드리지 못한다. 증거인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진석 비서실장도 “북에서도 실시간으로 보고 있을 거다. 일체의 기밀사항”이라고 가세했다.

야당의 계속된 공세에 정 실장은 “외압 의혹은 전언의 전언을 통해 들은 주장과 느낌만 있을 뿐 실제적 증거가 없

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병대원 사건의 본질은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이첩 보류 지시 명령을 박정훈 전 수사 단장이 어긴 항명”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한 것에 대해선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진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맞섰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석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 내용에 대해선 이도훈 홍보수석이 “윤 대통령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이 유튜브를 혼자 보고 그쪽 정보를 공식 라인 보고보다 더 신뢰했다면 국가 시스템의 붕괴”라고 질의하자 이 수석은 “의원님의 일방적 주장이다. 언론에 나온 그대로 생각하시나. 의원님의 생각은 없으시냐”고 되물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정 실장이 “불법적인 녹취와 촬영을 한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 사건”이라고 규정하자 임 의원은 “거절했으면 될 일로 김 여사가 거절하지 않고 명품백을 받은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맞받

았다. 정 실장은 “(명품백은) 포장 그대로 대통령실 청사 내에 보관 중”이라고 답했다. 또 “원론적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에 찬성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윤 대통령이 격노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동훈을 배신자로 여기고 있느냐”고 묻자 “그렇지 않다”고도 답했다.

회의는 여야 간 고성이가 오가며 수차례 정화됐다. 민주당 측이 “대통령실이 업무보고를 했는데 현황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몰아붙이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갑질”이라며 “민주당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치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민주당 강민구 최고위원이 최근 “민주당 아버지는 이제명 대표”라고 한 것을 비판 것이다. 이후 “왜 이렇게 손가락질하냐”, “그런 건 어디서 배웠느냐”, “깡판 치는 거냐”며 여야 간 고성이가 이어졌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오늘 사퇴=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자진 사퇴할 예정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 사퇴 후 새 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태인·김정재 기자

## 11년 만에 정무장관 부활 추진... “여소야대 속 국회와 소통 강화”

용산, 이달 중 정부조직법 발의  
인구전략부 신설, 여가부 유지

대통령실이 정무장관직 신설 방침을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국회와 정부와의 상호작용이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무장관은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실세들이 도맡곤 했다. 전두환 정부 때 노태우 전 대통령이, 노태우 정부에선 김윤환 전 의원이 맡았다. 김영삼 정부에선 김덕룡·서청원 전 의원이 직을

수행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던 김대중 정부에선 폐지됐다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특임장관으로 부활했다.

그러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각부처 장관이 사실상 정무 기능을 수행하는 책임장관제 기초 속에 폐지됐다. 이번에 부활하게 되면 그 후 11년 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소야대 구도에서 정부와 야당의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당무나 전당대회에 직접 개입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견제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저출생·고령화 대응과 이민·인력 정책 등 인구 문제를 총괄할 부총리급 기획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방안을 발표했다.

인구전략기획부와 정무장관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달 안에 발의하기로 했다. 여계가족부는 존속시키기로 했다.

현일훈·남수현 기자

## 3월 상급종합병원 진료 61% 줄었다

진료비는 지난해 대비 53% 감소

백혈병 남성 환자 A씨는 올해 고강도 항암 치료를 받고 암세포가 5% 미만으로 줄어든 관해(寛解) 상태가 됐다. 여기에는 추가로 1~2회 항암 치료를 해서 재발 가능성을 없애는 항암요법(공요법)을 하고, 조절호르몬 이식 수술을 받기로 돼 있었다.

그런데 의대 증원을 두고 의사 집단 행동이 시작되면서 이 시기를 놓쳤고 그새 암이 재발했다. A씨는 4월 말 어쩔 수 없이 다시 고강도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A씨가 다시 항암 치료를 받지만, 치료 성적은 종전보다 크게 떨어진다”며 “백혈병 등 혈액암 환자가 3월에 집중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관련 의사 집단행동의 여파가 예상보다 훨씬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일 “2월 의사 집단 행동이 시작된 후 3월 진료비 변화를 분석했다니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가 60% 넘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파동 이후 전체 의료기관의 실제 진료 변화를 집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에는 개별 병원이 임시로 추계했

고 수술이 30%가량 줄었다는 정도만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번에 상급종합병원 47곳, 종합병원 328곳, 병원 1338곳, 동네의원 3만2197곳 등의 전체 건강보험 진



지난 3월 25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고려대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1일 서울 송파구 잠실나루역 인근에서 의사 집단 진료거부 철회를 촉구하는 보건의료노조 서울아산병원지부 조합원들. [연합뉴스]

료비(비급여는 제외)를 분석했다.

의료기관이 진료하면 법정 본인부담금(진료비의 20~60%)은 당일 환자한테 받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에 청구한다. 그러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를 거쳐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다. 이 과정이 두세 달 걸린다. 그래서 3월 진료분이 지금 집계된 것이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 12면 ‘진료공백’으로 이어집니다

여권 사진 | 가족 사진 | 아기 사진 | 커플 사진 | 반려동물 사진 | 기념일 사진

## 한국에서 유명한 셀프포토 스튜디오가 6월에 센터빌 오픈했습니다!

“나만의 방 안에서 그 누구 눈치 안보고 편하게 찍을 수 있는 셀프 포토 스튜디오에 환영합니다”

예약 문자 / 전화: 703-400-7099

14260M Centreville Square, Centreville, VA 20121



온라인 예약

SELFO TO STUDIOS

www.Selfotostudios.com

## 보험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유니티 보험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보험/재정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 유니티의 강점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 기초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 유니티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대표번호: 888-756-7549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 나·원·윤 “배신” 협공에 한동훈 반격 “지지자 쫓는 자해정치”

전면전으로 치닫는 여당 전당대회 한, 원희룡 후보 탈당 전력까지 거론 나경원에 “학폭 피해자가 가해자 돼” 원 “총선 참패 책임자가 축제 언급” 윤상현 “비판 못 참는 반박 강박증”

그간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의 협공에 반응하지 않던 한동훈 후보가 맞대응에 나서면서 국민의힘 당권 주자간 공방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한 후보는 1일 오전 페이스북에서 “일부 후보들이 ‘공포 마케팅’에 여념이 없다”며 “이는 구태이자가 스테이팅이고, 확장논커링 지지자도 쫓아내는 뺄셈과 자해 정치”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가 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탄핵 사태가 도미노처럼 벌어질 것”이라는 공세에 맞대응한 것이다. 한 후보는 “대야 투쟁에선 말 한마디 않던 여당 인사의 내부 총질”이라는 한 지역 언론의 사실 문구도 공유했다.

한 후보는 같은 날 CBS라디오에서 원 후보와 나 후보를 지적했다. “한 후보가 총선 뒤인 5월 12일 식사 자리에서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을 것처럼 얘기했다”는 원 후보의 주장에 대해 그는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입맛에 맞게 윤석열하고 왜곡하는 게 좀 이상해 보인다”며 “제가 그분을 열심히 도와줬고, 고마워서 밥 사겠다고 해서 만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후보(왼쪽 사진부터)가 1일 세미나 참석과 방송 출연 등에 나섰다. 이날 나 후보는 국회에서 열린 안보 관련 세미나에 참석했고, 원 후보는 김영환 충북지사를 만나 환담을 나눴다. 같은 날 윤 후보는 인천시당에서 당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 후보는 서울 양천구의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후보(왼쪽 사진부터)가 1일 세미나 참석과 방송 출연 등에 나섰다. 이날 나 후보는 국회에서 열린 안보 관련 세미나에 참석했고, 원 후보는 김영환 충북지사를 만나 환담을 나눴다. 같은 날 윤 후보는 인천시당에서 당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 후보는 서울 양천구의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후보(왼쪽 사진부터)가 1일 세미나 참석과 방송 출연 등에 나섰다. 이날 나 후보는 국회에서 열린 안보 관련 세미나에 참석했고, 원 후보는 김영환 충북지사를 만나 환담을 나눴다. 같은 날 윤 후보는 인천시당에서 당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 후보는 서울 양천구의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후보(왼쪽 사진부터)가 1일 세미나 참석과 방송 출연 등에 나섰다. 이날 나 후보는 국회에서 열린 안보 관련 세미나에 참석했고, 원 후보는 김영환 충북지사를 만나 환담을 나눴다. 같은 날 윤 후보는 인천시당에서 당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 후보는 서울 양천구의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원 후보가 이날 SNS에 “한 후보는 민주당원입니까”라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선 “원 후보가 2018년 (세누리당) 탈당 뒤 제주지사 선거에 무소속으로 나왔을 때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다’는 말을 했다”며 “저는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마칠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원 후보가 6년 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민의 명령이라면 (민주당 입당 등) 모든 것을 열어놓고 생각하겠다”고 했던 것을 상기시킨 것이다. 원 후보 측은 “실제 민주당에 입당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의견을 무한 경청하겠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나 후보를 겨냥해선 지난해 전당대회 이야기를 꺼냈다. “지지율이 5%였던 김기현 전 대표가 인위적인 지원을 통해 당 대표가 됐고, 그때도 누가 되면 탄핵이 되니, 배신의 정치니 하는 (나경원 당시 후보를 겨냥한) 똑같은 얘기가 있었다”면서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그때 일종의 ‘학폭(학교 폭력) 피해자’였는데, 지금은 학폭 가해자 쪽에 서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당시 나 의원은 초선 의원 48명이 불출마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고, 친윤계가 집중 공세에 나서자 당 대표 도전을 접었다. 지난달 23일 출마 선언 이후 한 후보

가 특정 후보를 비판한 건 처음이다.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탄핵에 말려들면 국민에 대한 배신”(30일 원희룡), “사익을 위한 배신은 문제”(29일 나경원)라는 등 ‘배신’ 공세가 쏟아진 게 한 후보의 태세 전환을 불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배신의 정치는 유승민 전 의원을 겨냥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표현으로 ‘탄핵 트라우마’를 자극한다”며 “한 후보 측이 프레임 확산을 조기 차단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 후보의 반격에 다른 주자들은 발끈했다. 원 후보는 “전당대회를 축제로 만들자”는 한 후보의 말을 “총선 참패의 주된 책임자가 할 말은 아니다”고 받아친 뒤 “탄핵 징검다리(채 상병) 특검을 발의하겠다는 참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나 후보는 한 후보의 ‘학폭’ 비유에 대해 “저는 (한동훈·원희룡 후보 측의) 잠재적 학폭 가해자로부터 학폭 추방 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현 후보는 “엄격한 잣대로 남을 수사하던 분이 자기에 대한 비판은 조금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반박 강박증”이라고 지적했다.

손국희 기자

## 70대 운전자 인도로 돌진 보행자 사망

서울 시청역서...운전자 급발진 주장

1일 늦은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인근에서 대형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30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

이 사고로 오후 11시 기준 6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상자 8명 중 3명은 심정지 상태다.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70대 남성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신호대기하는 보행자를 친 것으로 보여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청장에게 “피해자 구조 및 치료에 총력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박중서 기자

## 최고위원 후보들 너나없이 ‘이재명 찬양’

당원투표 40~56% 확대도 한몫 당내 ‘개팔에 찍히면 못이기는 구조’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4선)·한준호(재선)·이성운(초선) 의원이 1일 최고위원 경선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다.

세 의원은 하나같이 출마 선언문에서 “이재명 지키기에 앞장서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이른바 ‘개팔’로 불리는 친명(親明) 강성 지지층의 표심에 호소할 것이다. 김민석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집권플랜 본부장이 되겠다”며 “이 전 대표와 총

분히 소통했다”고 강조했다. 이성운 의원은 “표적 수사가 얼마나 삶을 힘들게 하는지, 저도 보복 수사와 재판을 여러 번 받아 누구보다 잘 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맞짱 뜨는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준호 의원은 “정권교체라는 성과로 이 전 대표와 함께 증명해 내겠다”고 호소했다.

이들이 이 전 대표와의 인연을 강조하고 나선 데는 강성 지지층의 의견이 대폭 반영되는 선거 구조가 한몫한다. 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가 반영되는 비율은 2022년 전당대회 때 40%였는데 이번에 56%로 늘

어났다. 예선 격인 예비 경선 때도 권리당원 투표를 당 대표는 25%, 최고위원은 50%를 각각 반영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을 뽑기로 했는데 후보자가 9명 이상이면 예비 경선으로 8명을 추린 후 본경선을 치른다.

민주당 관계자는 “권리당원 비중이 과반이 되면서 개팔에 찍히면 이길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최고위원에 출마한 후보군도 강선우·김병주·민형배·전현희·정봉주·김지호 등 원내·외를 막론하고 모두 친명들로 채워졌다.

강보현 기자

### ▶ 11면 ‘진료공백’에서 이어집니다

지난 3월 상급종합병원 환자는 105만 3000여 명으로 지난해 3월(226만3000여 명)보다 121만 명(53.5%) 줄었다. 진료 건수로는 61.4%, 진료비는 53.2% 줄었다. 외래 진료 감소가 충격적이다. 외

래 진료 환자 수는 56%, 진료 건수는 63%, 진료비는 65% 줄었다. 상급병원들이 상당수 외래 환자를 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외래 환자를 못 보니 입원 환자도 덩달아 줄었다. 상급병원 입원 환자(39%)와 진료 건수(41%)가 비슷하게

줄었고, 진료비는 45% 줄었다.

안기중 대표는 “상급종합병원은 암·심장병·장기이식 등 중증 환자가 집중되는 곳이다. 상급병원의 ‘진료 60%’ 감소는 예상을 뛰어넘는다”며 “갑작스레 연기 통보를 받은 환자들이 급방 회

복될 것이라고 믿고 참고 기다렸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안 대표는 “연기된 진료가 4월 중하순에 조금씩 재개될 때까지 중증 환자들이 고통을 견뎌야 했다. 그 고통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1일 고려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 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12일을 기점으로 응급·중증 환자를 제외한 일반 진료를 대상으로 무기한 자율적 휴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약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 7월 HOT 리스팅

비키리 부동산

## 부동산 비키리와 함께하면 부동산에 안목이, 삶이 풍부해집니다.



**비엔나 타운홈**  
방3+화3+차고2  
2001년, 2100sf  
겔로스로드 던로딩 메트로  
도보로 5분거리  
**\$970,000**

<b>페이팩스</b>	타운홈 방3+화3, 차고1 <b>\$70만불대</b> 타운홈 방3+화3, 차고2 <b>\$80~\$85만불대</b>
<b>센터빌</b>	타운홈 방3+화3 <b>\$45만불~\$60만불</b> 타운홈 방3+화3, 차고1 <b>\$60만불대</b> 타운홈 방4+화3, 조지메이슨 대학 부근 <b>\$630,000</b>

임대

조지메이슨 대학부근  
싱글홈 2층 넓고 환한방1  
임대: 여학생 환영

EMPLER'S REALTY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 김원근 변호사 유언상속·이혼



- Probate·상속재산 정리절차·한국의 유산상속분쟁  
트러스트·유언·위임장 Power of Appointment·취소 가능 트러스트·취소 불가능 트러스트
- 합의 이혼·재판 이혼·한국관련 국제이혼 재산분할·자녀 양육권·양육비 생활비 청구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 군, 6년만에 전방서 K9 쏜다... 북 미사일 도발에 맞불

(군사분계선 5km 이내)

주초 대규모 지상 포병 사격훈련 9·19로 정지된 모든 훈련 복원 북한은 닷새 만에 또 미사일 도발 2발 중 1발 비정상비행... 실패 추정

북한이 1일 쏜 탄도미사일 두 발 중 한 발이 비정상 비행을 한 것으로 포착돼 군 당국이 정밀분석에 들어갔다. 앞서 닷새 전 공중폭발로 끝난 미사일 발사를 만회하려다가 또 실패했을 가능성이 있다. 대러 수출을 위한 '물량 검사' 목적일 수도 있는데, 실패로 돌아갔다면 북한 미사일의 불량률만 부각된 셈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오전 5시 5분과 15분쯤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

일(SRBM)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장연은 북한이 지난해 3월 14일 KN-23 개량형을 쏜 지역이다.

첫 번째 미사일의 경우 600여km를 날아가 동해상인 함경북도 청진시 앞바다에 떨어졌다고 한다. 문제는 두 번째 미사일이다. 군 당국은 비행거리가 120여km에 불과한 해당 미사일이 초기 단계부터 비정상 비행을 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북한관 이스칸데르 KN-23 개량형 발사 훈련 중 한 발은 성공했지만 다음 한 발은 실패한 것 아니냐는 의미다.

두 번째 미사일의 비정상 비행 추정 근거로는 방향을 꼽을 수 있다. 첫 번째 미사일이 동북쪽으로 향하면서 풀업 기동 등 KN-23 비행 특징을 나타

내며 청진 앞바다로 향한 반면 두 번째 미사일은 북쪽으로 치우쳐 발사된 뒤 SRBM의 정점 고도에 미치지 못한 채 레이더에서 소실됐다.

합참 관계자는 "공중폭발했다면 잔해가 내륙에 떨어졌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거리로 따지면 공중폭발 시 평양 인근에 잔해가 떨어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 실패에 쏠린 시선을 돌리기 위해 급히 다시 도발에 나섰다. 다시 사고를 났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미사일 도발 뒤 단 두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지만, 군 당국은 고체연료 기반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공중폭발한 것이라고 영상까

지 공개하며 반박했다.

KN-23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발사에는 수출용 미사일의 성능 개량 또는 과시 목적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KN-23의 발사 실패가 맞다면 북한제 무기체계의 신뢰성에 손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군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이은 미사일 도발에 맞서 수일 내 최전방 지상 포병 사격 훈련을 할 계획이다. 9·19 남북 군사합의로 중단된 해당 훈련을 약 6년 만에 재개하면서 강력한 대북 억제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겠다는 취지다.

1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은 이번 주 초 군사분계선(MDL) 5km 지역 내에

서 K9 자주포 등을 동원한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기로 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MDL 5km 지역 내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은 2018년 9·19 합의 이후 실시하지 못했다. 이에 강원 화천군 칠성사격장, 경기 연천군 적거리사격장, 경기 파주시 스토리사격장은 사실상 폐쇄에 들어갔다.

이번 지상 포사격 훈련은 그간 폐쇄된 사격장 중 1~2곳에서 우선 실시될 전망이다. 이후 최전방 야외기동훈련 등도 잇따라 진행하면서 대북 경고 메시지의 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순차적인 훈련 재개는 9·19 합의로 정지됐던 모든 방어훈련의 복원이라는 의미도 있다.

정영교·이근평 기자

## 저출생 위기 핀란드의 교육 실험 "해외 고교생들 무료 유학 오세요"

스타트업, 매년 1.5만명 유치 나서 현지 국민 세금으로 학비 전액 지원 일부 지역선 현금 장학금 등 혜택도 "숙련 노동자 선점 위한 장기 투자"

핀란드 동부 작은 마을 라우타바라의 고등학교에는 매년 20명 넘는 신입생이 입학했다. 그러나 저출생 영향으로 학생 수가 줄면서 올가을 이 학교에 입학하는 핀란드인 학생은 12명뿐이다. 이 학교 마리아 코르칼라이넨 교장은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미얀마·베트남·탄자니아 등에서 학생 6명을 초청하기로 했다. 이들은 핀란드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핀란드 학교에서 무료로 교육받는다.

핀란드 일부 고교가 이처럼 아시아·아프리카·남미 국가 학생들을 초청해 무료로 교육한다고 영국 이코노미스트 최신호가 전했다.

외국인 고등학생을 핀란드 학교로 데려와 가르친다는 아이디어는 핀란드 교육 스타트업 파이니스트 퓨처가 내놨다. 핀란드를 대표하는 디지털 게임 '앵그리버드'를 만든 로비오의 공동창업자 피터 베스터바카가 2020년 공동 설립한 파이니스트 퓨처는 베트남·태국·방글라데시·미얀마·튀르키예 등지에 지사를 두고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

올해는 1500명, 궁극적으로는 매년 약 1만5000명의 외국인 학생을 핀란드 고교에 유치하는 게 파이니스트 퓨처의 목표다. 인구 550만명인 핀란드의 고교생은 약 11만명. 이코노미스트는 "이미 일부 고교는 핀란드인 학생보다 외국인 학생을 더 많이 받고 있다"고 전했다. 외국인 학생 입장에서 영국 유



외국인 학생 초청 아이디어를 낸 핀란드 교육 스타트업 파이니스트 퓨처의 공동 창업자 피터 베스터바카(왼쪽)와 핀란드 고교에 다니는 외국인 학생들. [사진 파이니스트 퓨처 페이스북]

학 등과 비교할 때 비용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외국인 학생은 핀란드어를 배우야 하는 불편함은 있지만, 무료로 고교에 다니고 몇 년 뒤 대학도 공짜로 다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짚었다.

이런 파격적인 실험의 이면에는 저출생 추세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핀란드의 고민이 있다. 유럽연합(EU) 통계 전망에 따르면, 2030년까지 핀란드의 4~18세 인구는 10% 줄어들 전망이다. 핀란드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1.26명이었다. 게다가 인구가 도시로 몰리면서 지역 학교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수십년간 핀란드 지역 학교 수백 곳이 학생 수 급감으로 문을 닫았다. 일부 지역에선 무료 운전 강습, 현금 장학금 등의 혜택을 걸고 '학생 모시기'에 열을 올린다.

핀란드의 외국인 고교생 유치는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선점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베스터바카는 이코노미

스트에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면 장기적으로 모든 핀란드인이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0대 때 핀란드에 와서 언어를 배우고 핀란드 시스템에서 교육받은 외국인, 성인이 된 뒤 숙련 노동자 프로그램으로 들어온 외국인보다 성공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며 "정부가 외국인 학생 교육에 지출하는 돈보다 외국인 학생들이 성장해 핀란드에 가져다줄 돈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헬싱키 등 일부 대도시에서는 외국인 고교생 유치가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코노미스트는 "핀란드 학생 입장에서 (대도시에 위치한) 소수의 대형 학교에 지원을 집중하는 정책이 (소멸 위기인 지역의) 작은 학교들을 유지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험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핀란드의 이번 실험은 학교 운영에 귀한 교훈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유진 기자

## 전국 또 장맛비 수도권 내일까지 최대 150mm 물폭탄

오늘 시간당 30~50mm 강한 비 대부분 내일 오전 중 그칠 듯 남부 낮 최고 30도 폭염 예상

권에는 2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 시간당 30~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청, 강원 내륙이 30~80mm이다. 서울과 인천·경기 남부는 120mm, 경기 북부는 150mm 이상 비가 오는 곳도 있겠다. 충청권에선 많은 곳은 최고 120mm, 강원도에서도 많은 곳은 150mm 이상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남부지방에도 3일까지 30~80mm 많은 비가 전망된다. 특히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10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제주도에도 50~1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정체전선이 북상하는 대신 폭염은 남하할 전망이다. 2일 수도권의 예상 낮 최고기온은 24~27도, 강원도는 21~26도로 비교적 선선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상·전라권 등 남부지방에는 낮 최고기온은 30도, 체감온도는 32~33도까지 오르는 곳이 속출하겠단다.

정은혜 기자



서울 시내 한 반지하 주택 창문에 1일 오후 집중호우 대비 물막이판(차수판)이 설치돼 있다. 기상청은 2~3일 중부지방으로 북상하는 정체전선에 저기압이 유입되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청권에는 30~80mm, 많은 곳은 150mm가 넘는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연합뉴스]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 전안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녹내장 레이저 치료 & 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구인** 리셉션리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http://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b>DC 참고</b> <b>SOLD</b> \$ 2.5M DC, NoMa Metro 상권	<b>DC 사평센터</b> <b>SOLD</b> \$ 2.4M DC, Capital Hill 지역	<b>DC 단독건물</b> <b>SOLD</b> \$ 1.5M Benning Rd., 개발지역	<b>DC Mixed-Use</b> <b>SOLD</b> \$ 1.6M Capital Hill지역	<b>DC 사평센터</b> <b>SOLD</b> \$ 4.5M Popeyes, 연인컴 \$32만	<b>DC NW 아파트</b> <b>SOLD</b> \$ 1.5M Metro 상권, 5 유닛
<b>DC Georgetown</b> <b>SOLD</b> \$ 930K Retail / Residential	<b>DC H Street</b> <b>LEASED</b> 단독건물 Union Station	<b>DC Warehouse</b> <b>SOLD</b> \$ 6.8M 67,000sf, Industrial	<b>DC Warehouse</b> <b>SOLD</b> \$ 5.8M 56,000sf, 창고 6에이커	<b>DC Warehouse</b> <b>SOLD</b> \$ 3.6M 냉장 / 냉동고, 창고	<b>for SALE</b> \$ 1.8M DC 3 유닛 주상복합 NW Metro 상권

**DC 건물 리스킹 하실 건물주 분들!**

DC 건물 테넌트와 TOPA 거래 전문부동산 개발업자와의 연계로 최상의 조건으로 팔아드립니다!

**703.395.3123**

**FORTUNE Realty Advisors**

우리말 바꾸기

‘떠벌이’는 없다

무하마드 알리라는 권투선수가 있었다. “나 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는 말로 유명하기도 했지만 그는 떠벌리는 것으로도 이름을 날렸다. 이처럼 자주 수다스럽게 떠들어대는 사람을 ‘떠벌이’라 해야 할까? ‘떠버리’라고 해야 할까? 정답은 ‘떠버리’다.

‘떠벌이’와 ‘떠버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동사인 ‘떠벌이다’ ‘떠버리다’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뭘 그렇게 떠벌이고 다니느냐?”에서와 같이 ‘떠벌리다’를 ‘떠벌이다’로 잘못 쓰는 경우가 많다. ‘떠벌이다’와 ‘떠버리다’를 좀 더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벌이다’와 ‘버리다’의 차이를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 ‘벌이다’는 “잔치를 벌였다”에서와 같이 무언가를 펼치거나 늘어놓는 일에 쓰인다. ‘벌이다’에 ‘떠’를 붙여 ‘떠벌이다’고 하면 “그는 사업을 떠벌였다”처럼 굉장한 규모로 차린다는 뜻이 된다. ‘버리다’는 “간격을 많이 벌렸다”처럼 무언가의 간격을 넓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떠버리다’ 역시 이야기를 점점 넓고 멀게, 즉 과장해서 말하는 것을 가리킨다.

정리하면 무언가를 늘어놓는 일에는 ‘벌이다’와 ‘떠벌이다’, 무언가를 넓히거나 과장하는 일에는 ‘버리다’와 ‘떠버리다’를 써야 한다. 그리고 알리처럼 떠벌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떠버리’라 해야 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제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중앙칼럼

시니어에게 점심 한 끼가 중요한 이유



김형재  
LA중앙일보  
사회부 차장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인 사회의 점심 문화가 달라졌다. 식당 점심 메뉴 가격이 눈에 띄게 올랐다. 10년 전쯤엔 한인타운에서 10달러 미만 점심 메뉴를 쉽게 찾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하늘의 별 따기다.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은 ‘푸드 코트’. 주로 대형 한인 마켓이 있는 곳에 자리한 푸드 코트는 남녀노소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장소였다. 하지만 푸드 코트도 더는 ‘만만했던’ 푸드 코트가 아니다. 아무리 싼 점심 메뉴도 10달러가 훌쩍 넘는다. 세금 포함 13~15달러는 쥐야 한 끼 해결이 가능하다.

푸드 코트 메뉴 가격이 이 정도니 일반 식당 가격 인상폭은 더 심하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등 단품 메뉴도 15달러가 넘는다. 세금과 주차요금까지 포함하면 점심 한 끼 20달러가 일상이 됐다. 팬데믹 전과 비교해 모든 메뉴가 30% 안팎으로 올라버렸다.

매일 점심 한 끼를 해결해야 하는 직장인들 사이의 불멘소리는 어쩌면 당연하다. 물가 인상폭을 따라가지 못하는 급여를 쥐어 짜낼 방안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일부는 반가운 사람을 만났을 때, 직장 동료나 지인에게 “우리 점심 한 번 먹자”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한다고 토로할 정도다. 사회생활 중 점심 한 끼를 대접하려면 2인 기준, 최소 40달러 이상이 들어서다.

음식 관련 물가 인상은 한인 시니어를 더 옥죄

고 있다. 최근 한 달 동안 LA 한인타운에서 만난 시니어 상당수는 “한식당을 가고 싶어도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생활보조금(SSI)으로 생활하는 저소득층 시니어일수록 먹거리 고민은 깊었다. 이들에게 ‘점심 웰빙(Well-Being)’은 사치 그 자체가 돼버렸다. 동시에 시니어에게 점심 한 끼 해결은 가장 민감한 이슈가 됐다.

한 70대 할머니는 “일반식당은 가격, 세금, 팁까지 올라 시니어가 방문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시니어는 “한식당을 가고 싶어도 비싸서 못 간다. 친구에게 점심 먹자는 말도 못 한다”고 말했다.

시니어에게는 점심 한끼가 단순히 끼니 해결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이들에게 점심 한 끼는 친구, 지인과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소중한 친목의 시간이다. 시니어는 나이가 들수록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그나마 외출해서 반가운 이들을 만나는 기회가 점심인 셈이다.

점심 한 끼 부담은 자칫 시니어 외로움과 고립

감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볼 문제가 아니다. 한인 사회와 관계 기관들은 시니어의 안정적인 점심 한 끼 해결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시니어들 사이 점심 한 끼 해결을 위한 보물창고도 한창이다. 물가인상을 피할 수 없으니 최대한 싸고 맛 좋은 식당을 찾아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차모 할아버지는 “아침 9시쯤 한인타운 시니어&커뮤니티 센터에 가 줄을 서면 바나나와 커피를 준다. 사우스베일로 한의대 구내식당은 100달러를 주면 식권을 9장이나 준다. 아드모어 예비뉴와 3가 쪽 중국집은 점심 짜장 한 그릇이 5달러”라고 귀띔했다. 점심 메뉴의 가성비를 중시한 뒤, 친구들과의 정서적 교감 기회만큼은 포기하지 않으려는 이들의 노력이 많은 것을 생각해 준다.

LA시 노인국은 올해부터 LA 한인타운 시니어&커뮤니티센터에서 주중 5일 무료 점심(약 225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한식 도시락으로 확대되면서 신청자는 1000명을 넘어섰다. 무료 점심 한 끼를 먹기 위한 경쟁률은 4대 1. 수많은 시니어가 오전 9시만 되면 센터 앞에 줄을 서고 있다.

최근 LA시는 예산 부족 문제를 이유로 시니어 음식 프로그램(Senior Meals Program) 축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점심 한 끼가 시니어의 신체 및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열린광장

7월에 있었던 일



윤경중  
연세목회자회  
경영회장

프랑스에는 7월 1일 출생자 가운데 유명인이 세 명 있다. 1725년에 태어난 콩 드 로상보 장군, 1804년에 출생한 소설가 게을취 상, 그리고 1872년의 비행사 루이 블레리오가 그들이다. 반면, 미국에선 7월에 전쟁이 많았다. 1863년 7월에 펜실베이니아에서 남북전쟁의 최후 결전이 벌어졌고, 1898년에는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샌 주엔 힐을 점령하기도 했다.

하지만 7월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달이다. 바로 1776년 7월 4일 연방의회에서 독립선언서(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를 발표한 것이다. 독립선언서는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 중 한 명인 존 헨콕이 가장 먼저 서명을 했다. 그래서 이 날을 미국의 독립기념일 (Independence Day)로 정해 매년 기념하고 있다.

세계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전쟁 두 가지가 7월에 일어났다. 첫째, 1914년 7월 28일 오스트리아/헝가리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세계 제1차 대전이 발발했고, 1937년 7월 7일에는 중국과 일본의 전쟁이 시작됐다.

이달에는 또 큰 사건도 많았다. 1789년 7월 14일 프랑스에서는 바스티유 혁명이 시작됐다. 바스티유 감옥 습격으로 시작된 이 혁명은 프랑스 왕정이 몰락하는 계기가 됐다. 1945년 7월 16일 뉴멕시코 주 사막에서는 몇몇 과학자들이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했다. 그 후 8월 6일엔 일본의 히로시마, 8월 9일에는 일본의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됨으로써 마침내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났다. 또 1969년 7월 20일에는 인류 최초

로 달에 착륙해 달 표면을 걷는 역사적 일이 있었다. 달 표면을 가장 먼저 걷은 우주인이 그 유명한 닐 암스트롱이다.

한국에서는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이 체결됐고, 1980년 7월에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군사정권 하에서 내란음모 사건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사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밖에 7이 들어간 격언이나 문구도 제법 있다. 7자가 들어간 어휘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섞여 있어 꽤 재미있다.

7자가 겹친 ‘칠종칠금(七縱七擒)’은 마음대로 잡았다가 놓아 주었다 하는 비상한 재주를 의미하고, 사업이 계속 실패하거나 잇단 불운으로 갈피를 못 잡을 때는 ‘칠령팔락(七零八落)’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칠월이 되면 으레 장마가 온다는 의미의 ‘칠월 장마는 꾸어서 해도 한다’, 또 수입이 줄어 살기 힘들다는 의미의 ‘칠팔월 은어 끊듯’이라는 한국 속담도 있다.



맛있는 용자의 달인

#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 김철민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교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 합동법률사무소

###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천 앞 빌딩 3층



직장사고

운동사고

교통사고

#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쭈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7023 Little River Tnpk., #409, Annandale, VA 22003

###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Office Hours by Appointment

31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카카오톡으로 빠른상담  
탑트래블USA 실시간상담!

번역및 공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시만권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유심칩 판매 한국방문시 로밍 걱정없!  
최저가 유심/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항공권+유심칩  
동시 구매하시면 할인해드립니다

한국유심 \$45  
유럽유심 \$50

미동부 투어가이드 에이전트(센터빌지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할 곳: info@toptravelusa.com  
문의: 703 543 2322 레나 고 실장

원더풀투어는 탑여행사의 전문인솔자가 모시고 떠나는 업그레이드된 항공 여행입니다.

7월의 추천투어

대한항공탑승, 한국방문과 함께하는

# 호주 & 뉴질랜드

11박12일  
10/14~10/25  
\$3,790 +항공

**특전**

1. 전일정 4성급 이상 고급 호텔 숙박
2. 양이디너, 선상 뷔페 등 전통 럭셔리 식사
3. 8대 불가사의 반딧불 동굴 보트 투어 탑승
4. 시드니 항구를 감상하는 디너 크루즈 포함
5. 온천욕, 관광열차, 케이블카, 유람선 등 포함

원더풀투어 Wonderful TOUR

탑여행사 전문 에이전트에게 직접 문의하세요!

레나 고 703.663.8534 윤태웅

2024 크루즈

**알래스카** \$1990~부터 (인사이드,항공포함)  
7박 8일 8/30~9/6

**뉴잉글랜드** \$1190 (인사이드)  
9박10일 10/17~10/26

**남부 카리브해** \$1390 (인사이드)  
12박13일 12/7~12/19

# Wonderful TOUR 2024 Yearly Schedule

8/09~8/19 북유럽 4개국 10박11일 \$5290+항공

8/14~8/19 여름방학특선 캐나다 록키 5박 6일 \$2290(항공포함) **마감**

8/15~8/21 알래스카 일주 6박 7일 \$2990(항공포함) **마감**

8/30~9/06 알래스카 크루즈 7박 8일 **마감**  
인사이드 \$1990~부터 (항공포함)  
발코니 \$2590~부터 (항공포함)

8/30~9/02 노동절 특선 옐로스톤 3박4일 \$1290+항공

9/02~9/13 영국일주 11박12일 \$5890+항공

9/10~9/20 정통 서유럽 10박11일 \$3490+항공 **마감**

9/18~9/26 정통 동유럽 8박 9일 \$3290+항공

9/18~10/1 동유럽&크로아티아 발칸 13박14일 \$4390+항공

9/20~10/2 파노라마 서유럽 12박13일 \$3890+항공

9/25~10/1 크로아티아 발칸 6박 7일 \$2890+항공

9/23~10/2 정통 서유럽 10박11일 \$3490+항공

9/24~10/4 고품격 고국일주 3차 **마감**  
10박11일 \$2990+항공

9/25~10/5 그리스&튀르키예 10박11일 \$2890+항공

10/03~10/16 독일 일주 13박14일 \$5690+항공

10/08~10/18 스페인&포르투갈 **마감**  
10박11일 \$3190+항공

10/09~10/19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490+항공 **마감**

10/14~10/25 호주&뉴질랜드 11박12일 \$3790+항공

10/15~10/25 고품격 고국일주 4차 **마감**  
10박11일 \$2990+항공

10/17~10/30 프랑스 일주 13박14일 \$5690+항공

10/17~10/26 캐나다&뉴잉글랜드 크루즈 9박10일 \$1190(인사이드)

10/22~10/31 튀르키예 성지순례(소아시아 7교역) 8박 9일 \$1990+항공

10/22~11/01 고품격 고국일주 5차(단통특선) 10박11일 \$2990+항공 **마감**

10/29~11/08 산티아고 순례 10박11일 \$3590+항공

10/29~11/08 고품격 고국일주 6차 10박11일 \$2990+항공

11/27~12/01 추수감사절 특선 코스타리카 4박 5일 \$1190+항공

12/07~12/19 남부카리브해 크루즈 12박13일 \$1390(인사이드)

12/23~12/28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5박 6일 \$2390+항공

12/23~12/29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6박 7일 \$2390+항공

8월

# 캐나다 록키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캐나다!!  
투명한 호수와 빙하로 둘러싸인 거대한  
록키산맥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여행

8/14~8/19 **\$2,290** (항공포함)  
5박 6일 (여름방학 특선)

8월

# 알래스카 일주

마타누스카빙하, 콜럼비아대빙하,  
엑시트 빙하 모두 볼 수 있는 기회!

8/15~8/21 **\$2,990** (항공포함)  
6박 7일 **마감**

9월

# 영국 일주

위대한 제국의 영광이 그대로 살아있는  
잉글랜드&스코틀랜드&아일랜드

9/2~9/13 **\$5,890** +항공  
11박12일

9월

# 정통 서유럽

9/10~9/20 **마감**  
9/23~10/2 **\$3,490** +항공  
10/9~10/19 **마감**  
10박11일

9월

# 동유럽 & 크로아티아 발칸

9/18~10/1 **\$4,390** +항공  
13박14일

9월

# 파노라마 서유럽

정통 서유럽에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를 더했습니다.

9/20~10/2 **\$3,890** +항공  
12박13일

9월

# 그리스 & 튀르키예

\*산토리니 옵션

9/25~10/5 **\$2,890** +항공  
10박11일

10월

# 독일 일주

괴테, 바흐 등 독일의 문학, 음악,  
역사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

10/3~10/16 **\$5,690** +항공  
13박14일

10월

# 스페인 & 포르투갈

10/8~10/18 **\$3,190** +항공  
10박11일 **마감**

10월

# 프랑스 일주

문화와 예술의 나라로 불리는  
프랑스의 도시를 둘러보는 여행!

10/17~10/30 **\$5,690** +항공  
13박14일

11월

# 코스타리카

전 국토가 국립공원,  
중남미의 푸른 유토피아 생태관광

11/27~12/1 **\$1,190** +항공  
(추수감사절 특선)  
4박 5일

12월

# 이태리 일주

밀라노-베니스-볼로냐-피렌체  
로마-나폴리, 폼페이, 소렌토

12/23~12/29 **\$2,390** +항공  
(크리스마스 특선)  
6박 7일

한국관광공사 VISIT KOREA YEAR

항공권, 고국관광, 건강검진, 출국전 준비까지 **한국방문의 모든 것!**

**고품격 고국일주** 10박 11일 \$2990+항공

3차 9/24~10/4 **마감**  
4차 10/15~10/25 **마감**  
5차 10/22~11/1 (단통특, **마감**)  
6차 10/29~11/8

서울/군산/전주/보성/순천/여수/광양/하동/진주  
거제/부산/울산/경주/삼척/정동진/강릉/속초/제주

**특전**

1. 워싱턴 최초 디럭스 28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2. 모든 옵션 포함
3. 최고급 호텔 숙박 (호텔을 꼭 비교해 보세요!)  
서울 롯데호텔 / 전주 한옥마을 라안호텔 / 여수 소노캄 / 가제 소노캄  
부산 크렌도조진 / 경주 라안호텔 / 속초 롯데리조트 / 제주 롯데호텔
4. 고객 입장을 고려하여 특별히 안전한 업그레이드된 식사

\* 고국 1~5차 모두 제주 배고 다낭이나 일본을 갈 수 있습니다.  
고국+제주/다낭/일본 원하시는 일정으로 선택 가능

**3박 4일** 서남권 \$899+항공 매주 일요일  
**4박 5일** 동해권 \$999+항공 매주 금요일  
**5박 6일** 서남+제주 \$1499+항공 매주 일요일  
**9박 10일** 전국일주 \$2149+항공 매주 일요일

**동남아 여행**

3박5일 방콕/파타야 \$590+항공 3박5일 대만 \$499+항공  
3박5일 푸켓 \$599+항공 3박4일 대만 \$690+항공  
3박5일 하노이/하롱베이 \$590+항공 3박5일 싱가포르 \$790+항공

한국 왕복 비용으로 대한항공 항공권+동남아 여행이 가능합니다!

**일본 여행**

3박4일 동경 \$999+항공 8박9일 일본완전일주 \$2690+항공  
3박5일 오사카 \$999+항공

**고국건강검진**

세브란스(기보검진) 한국국적 남 \$700/여 \$750  
미국국적 남 \$910/여 \$975  
경희대병원(특화검진) 남/여 \$610  
삼성서울병원(기보검진) 남 100만원 /여 113만원  
한양대학교(기보검진) 남/여 \$460  
원대세병원/서울대병원/가천대병원

독립기념일 특선

# 뉴욕 불꽃놀이

1박 2일 \$450  
7월 4일 출발

동부관광 탑여행사가이드가 직접 행사합니다!

# 미동부 뉴욕·천심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토론토 천심/몬트리올/퀘벡 플라즈버그/뉴욕

매주 월요일 5박 6일 \$1350  
대행버스 출발: 7/29, 9/16, 10/14

미동부 베스트셀러

# 뉴욕·천심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 옆 호텔 숙박

매주 월요일 3박 4일 \$899  
대행버스 출발: 7/22, 8/5, 10/14

서부관광

# 미서부

서부의 주 도시와 3대 캐년까지 알찬 여행

8박 9일 일출발 \$1450+항공

성극

# 대니얼 +아미쉬마켓 당일

\$199 8/1, 9/19, 9/14  
10/17, 12/12

동부 명도 해산만 숙박

# 뉴욕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 옆 호텔 숙박

매주 월요일 2박 3일 \$650  
대행버스 출발: 7/22, 8/5, 9/23

뉴욕

1박 2일 \$399

탑여행사 당일관광

워싱턴디씨 \$100  
루레이동굴 \$125  
DC런치크루즈 \$169(주중)\$199(주말)

서부 4대 캐년 5박 6일 \$990+항공 매주 일

5대 캐년+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매주 일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5박 6일 \$990+항공 매주 수

옐로스톤 3박4일 \$890+항공 **월요일**

캐나다 록키 4박5일 \$1190+항공 **월요일**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571.405.6540**

# 교육 & 연예/문화 Sports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JoongAng Ilbo

Tuesday, July 2, 2024 C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 (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량있는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f.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 여름방학 영어 공부 부족하면 뒤처져

### 서머 슬라이드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한인 학부모들은 고개를 가우뚱한다. 학교에서는 소수계 학생으로 ESL에 넣기까지 한다. 학교에서 똑같이 배우는데 왜 그럴까. 아마도 개인적인 차이려니 생각했다. 그런데 이렇게 소수계 이민자 가정의 자녀들이 다른 백인 학생들에 비해서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미 미국 교육계에서는 오래전부터 '현상'으로 파악해서 활발히 연구했던 주제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똑같은 학교를 다녔는데도 영어 실력 격차가 나는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학계에서 꼽고 있는 것은 '서머 슬라이드'(Summer Slide)라고 명명했다. '여름방학에 뒤로 미끌어지는 것'이다

영어 능숙하지 않은 부모 자녀들  
집에서 영어 공부 중단하기 때문  
5~6학년 부터 차이 보이기 시작  
소리내어 책 읽으면 줄일 수 있어

대부분 한인 학생들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영어보다는 수학을 아주 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뒤집어서 따져보면 어려서 미국에 왔거나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도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해하기 쉽지 않았다.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똑같이 배우는데 왜 영어가 부족한지 궁금했다. 하지만 미국 교육계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있어 왔다.

일반 학기 중에는 똑같이 공부하고 숙제하는데 학부모가 영어에 능숙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낮아서 함께 있으면서 공부를 도와주지 못해도 학기 중에는 매일 학교에 등교하기 때문에 차이가 별로 없다. 하지만 이런 소수계 가정의 대부분 자녀들은 여름방학에 영어 공부를 중단하기 쉽다. 이것이 결국 영어에서 뒤처지는 원인이다. 더구나 이런 현상은 암 같은 질병처럼 쌓여서 누적 피해를 입힌다고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해서 자녀들이 가정 밖에서만 영어를 사용하는 경우 3~4학년까지는

백인과 소수 민족 학생간에 영어 능력과 성적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하지만 5~6학년 부터 차이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서 평균적으로 볼 때 6~7학년이 되면 백인과 소수 민족 자녀들의 영어 수준이 2년 정도의 격차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여름방학이 길고 지속적인 영어 공부가 어려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극단적으로 따져보면 8학년 한인 학생의 영어 수준이 백인계 6학년 수준인 셈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한인들의 다른 소수계와 달리 높은 교육열 덕분에 여름 캠프나 SAT 및 보충학습학원 등의 특단의 노력을 하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소수계 학생들이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격차가 더 커진다고 지적한다. 똑똑한 한인 학생이 수학은 잘해도 영어가 같은 수준이 못 되는 이유가 바로 서머 슬라이드 현상 때문인 것으로 교육계는 분석하고 있다. 특히 관련 연구에 따르면 소수계 학생들의 영어 능력 차이의 85%가



여름방학 중 영어 공부를 계속하려면 소리내어 읽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서머 슬라이드에 빠지지 않으려면 소리내어 읽는 것이 좋다. [빙트컴 copilot 생생]

지 이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조사도 있다. 아울러 후속 연구에 의하면 9학년생 중 3분의 2가 갖고 있는 읽기 실력 차이도 알고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쌓였던 차이에 원인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러면 서머 슬라이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공부는 공부로 해결하는 수 밖에 없다. 자녀를 위해서 서머 클래스를 계속 듣게 하는 것도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계속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중단 혹은 단절 사태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린 초등이나 중학생에게 서머 클래스를 계속 수강하게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분야 권위자인 하버드 교육대학원 제임스 김 교수의 조언을 들어보면, 해결 방법은 여름방학동안 영어책을 4권만 읽으면 뒤처짐을 극복할 수 있다. 여름방학이 3개월이니 한 달에 1권 정

도만 읽어도 된다. 하지만 김 교수는 그냥 읽기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소리내어 (oral reading) 책을 읽고 스스로 읽은 것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책 읽는 것을 싫어한다면 텍스트가 포함된 오디오북도 권장할 만하다. 듣고 따라해 보는 것이 가능해서 영어 실력이 뒤로 퇴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조언이다. 읽고 듣고 이해하면 종합적인 영어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온갖 영어 매체, 특히 유튜브 같은 사이트를 통해서 전 세대들이 어려워했던 영어 학습이 가능하다. 어쩔 때는 직장 생활을 하느라고 자녀와 대화가 없을 경우, 한국어 실력을 걱정해야 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책을 직접 소리내어 읽는 것이 전반적인 영어 실력 향상에 더 도움이 된다. 유튜브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된다. 듣기만 해서는 진전이 없다.

장병희 기자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메출 앞 빌딩**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교통사고** |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통증 전문 병원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하나요?**  
A. 사고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는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매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노폴트(No-fault)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IP커버는 기본 \$2,5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서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 할지도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려고 한다면 정해놓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으나 내가 과실하지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폴트 보험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않을까요?

**사건후 서류 처리** 변호사 선임 통역 및 교통편 제공  
**치료 전문 LMT마사지** 테라피스트가 함께합니다  
**각종 보험** BlueCross BlueShield

**CareFirst BlueCross BlueShield**

**원장 Dr. 김동국 D.C.**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와 직장사고 등 상해**에 관한 후유증은 20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지난 3년안에 본인 혹은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Mocurry Chiropractic** |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Ellicott City, MD 21042 **410-480-0083**

# 타고난 기질도 바꾼다... 급성장하는 호르몬 시장

다수가 모여 조직을 이루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통신체계가 필요하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 몸속 의사소통도 실제 통신체계처럼 유선과 무선,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인체의 '유선 통신체계'는 바로 신경계다. 외부의 자극을 인식한 감각신경이 이를 중추신경계에 전달한다. 뇌에서 해석되고 처리된 정보는 다시 운동신경을 통해 전달돼 근육의 움직임으로 이어진다. 이 순환을 이루는 신경세포가 끊어지면 전체 과정은 제대로 일어나지 못한다.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신경에 손상을 입으면 감각이 무뎠거나 움직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 때문이다.

여기에 인체는 무선통신체계라 할 수 있는 내분비계(endocrine system)를 통해 균형을 조절한다. 무선통신에서 송신기는 전파를 사방으로 발산하지만, 주파수가 맞는 수신기만이 이를 받아서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인체 내 다양한 내분비샘에서 방출한 호르몬들은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가지만, 표적기관에 존재하는 특정 호르몬 수용체에만 결합해 기능한다.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과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표적기관의 상대적 위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특정 호르몬과 결합하여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전용 수용체의 존재와 이들이 제 기능을 하는지 여부다.



### 호르몬의 발견

19세기를 지나면서, 과학자들은 동물 실험을 통해 갑상샘이나 부신·뇌하수체 등을 제거하면 실험 동물에게서 다양한 이상 증상이 나타나며, 제거된 기관들을 다시 이식하면 증상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면서 이들 기관에서 신체의 균형을 조절하는 '물질'이 분비되고 있음을 눈치채고 있었다. 이 가능성이 확실해진 것은 1902년이였다. 영국의 생리학자 윌리엄 베일리스와 어니스트 스탈링은 동물에게서 이자액의 분비를 조절하는 물질을 찾아 분리해내는 데 성공했고, 여기에 '분비하다'라는 뜻의 세크레틴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세크레틴의 발견 이후, 연구자들은 우리 몸 곳곳에 뇌하수체·시상하부·갑상샘 등 다양한 호르몬 분비기관이 있으며, 여기서 50여 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분비돼 각각 신체의 성장 및 성숙과 각종 대사 활동을 조절하고, 기분과 감정 변화를 일으키며, 식욕과 성욕 및 기타 욕구들을 조절하며, 면역반응까지 관장한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그리고 이런 물질들을 일컬어 '자극하다'라는 뜻을 지닌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호르몬(hormone)이라는 이름을 붙여준다. 세크레틴의 발견으로 시작된 20세기는 인체에서 분비되는 새로운 호르몬을 찾아내고, 이들의 기능을 알아내며, 이로 인한 질병을 밝혀내고, 치료법을 찾아내는 일련의 과정들의 반복으로 채워진다.

그리고 한 세기가 지났다. 초기에는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서 존재하던 호르몬을 추출해 사용하는 방법이 제시됐지만, 절대적 공급 부족과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윤리적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결정적으로 이 과정에서 제공자의 질병이 전염되는 심각한 문제도 발생했다. 1960년대에 있었던, 시신의 뇌하수체에서 추출한 인간 성장 호르몬 제제로 왜소증 치료를 받던 아이들 수십명이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에 걸린 비극은 호르몬 치료가 드러운 가장 짙은 그늘이었다. CJD에 걸리면, 뇌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리고 1년 이내에 사망한다. 다행히 과학자들은 인간의 몸속에서만 분비되던 호르몬을 인공합성하거나 유전자 재조합 미생물에게 대신 만들어내게 하는 방법을 찾아내 비극의 대물림을 막았다.

### 호르몬 치료의 현재와 미래

현재 전 세계 호르몬 제제의 시장은 엄청난 규모로 성장했고,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짐작된다. 1961년 처음 개발된 피임약 시장은 2023년 기준 185억 7000만 달러로 늘어났으며, 당뇨병 치료제인 인슐린 시장은 2021년에만 203억 5000만 달러에 달했다.

왜소증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인간 성장 호르몬 치료(2022년 기준, 53억 달러)와 갱년기 여성들의 건강을 위해 처방되는 호르몬 대체요법(2023년 기준, 129억 9000만 달러) 시장도 엄청난 규모를 이루고 있다.

글로벌 경제단체들은 이들 호르몬 치료제의 시장은 적어도 향후 10년간은 분야별로 해마다 1.5~5%씩 꾸준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평균 수명의 증가와 생활 방식의 변화, 건강에 대한 욕구 증진이 호르몬 치료제 시장을 확장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호르몬 치료가 보편화하면서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가 우리가 지금까지는 타고난 기질이나 노력의 부족 등 개인의 탓이라고 여겼던 많은 것들이 실상은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라는 생각이다. 이런 시각의 변화는 부정적인 증상에 대해 개인에게 지닌 책임을 지우던 관행에서 벗어나 꼭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돕는 긍정적 변화와 동시에, 정도를 조금이라도 벗어난 행동들을 개인의 다양성이 아니라 호르몬 치료를 통해 교정받아야 하는 병적 증상으로 확대하는 과도한 대응까지 다양한 결과들로 이어졌다. 이런 극단적인 개념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여전히 호르몬의 그것과 같을 것이다.

애초에 호르몬은 인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시스템이 균형을 맞춰 제 기능을 하도록 조율하는 물질이다. 모자란 것도 지나친 것도 아닌 딱 적절하게 균형을 잡는 것, 그것이 호르몬의 역할이자 호르몬 치료의 개념인 동시에 호르몬의 조절을 받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어야 할 것이다.

이은희 과학커뮤니케이터



이우영의 과학 산책

## 루소의 에밀, 시공간으로의 초대

자연은 알다가도 모를 일, '자연스러 운가?'라는 질문은 실로 난제다.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을 지나 주어진 직선과 평행한 직선은 오직 하나 있다는 주장은 자연스러운가? 기원전 3세기, 유클리드는 이 주장을 자연스럽게 여겼다. 증명이 안 되자 약속하자고 했다. 이를 '평행 공리'라 한다. 그래도 의심스러웠던지, 유클리드 시대 이래로 19세기에 이르기

까지 평행 공리를 증명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 1831년, 헝가리 수학자 야노시 보이어(1802~1860)의 논문이 발표되고 나서야 이 시도는 멈췄다. 야노시의 아버지인 볼프강 보이어(1775~1856)도 평행 공리 증명에 일생을 바쳤다. 아들에게 쓴 편지에서 그의 회한이 느껴진다. "나는 이 죽음의 바다의 모든 암초를 지나 항해했지만, 항상 부러



진 뿔대와 다 찢긴 돛을 단 채로 되돌아오고 말았다." 볼프강은 장자크 루소가 쓴 책 『에밀』의 교육방식으로 어린 야노시를 교육했다. 즉, 놀이와 자연 여잔에 중

점을 두고 공부보다는 주로 운동·음악 등으로 어린 시절을 보내게 했다. 그래서였을까. 청년 야노시는 평행문제를 고민하다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어린 시절 루소주의(Rousseauism) 교육을 하셨듯, 자연에 폭력을 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자연을 맹목적인 공상으로 얽매지도 말아야 합니다. 자연을 그저 자연스럽게 대해야 합니다." 야노시에게는 평행 공리가 몹시 부자연스럽게 보였다. 오히려 평행선이여

러 게 있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다. 그는 새로운 우주를 그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인류 지성사 최고의 상상력. 마침내 평행선이 여러 개 존재하는 쌍곡 기하학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야노시 보이어의 이 발견은 우리가 사는 공간에 대한 이해의 실마리를 제공했으며, 오늘날 우리를 아인슈타인의 시공간의 세계로 안내했다. 원초적으로 보면, 루소의 에밀이 초대장을 보낸 것이니, 새삼 에밀의 교육이 경이롭다.

고등과학원 HCMC 석학교수

### 구강교육치과

##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펜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료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어 치과의사상 수상



###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www.naturadent.net

- 임플란트 Implant
-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 응급환자 Emergency
-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시십시오.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 “너 T라 별로” 타박받는 그들... 강남선 ‘공감학원’까지 등장

(Thinking, 논리·분석적인 성향)

MBTI 전성시대, 한국 사회 그림자 무뚝뚝한 말투·표정 지적받기 십상 일부선 ‘T=사이코패스’ 공격하기도 학원선 대화·리액션 방법까지 강의 “다양성 포용하는 사회 분위기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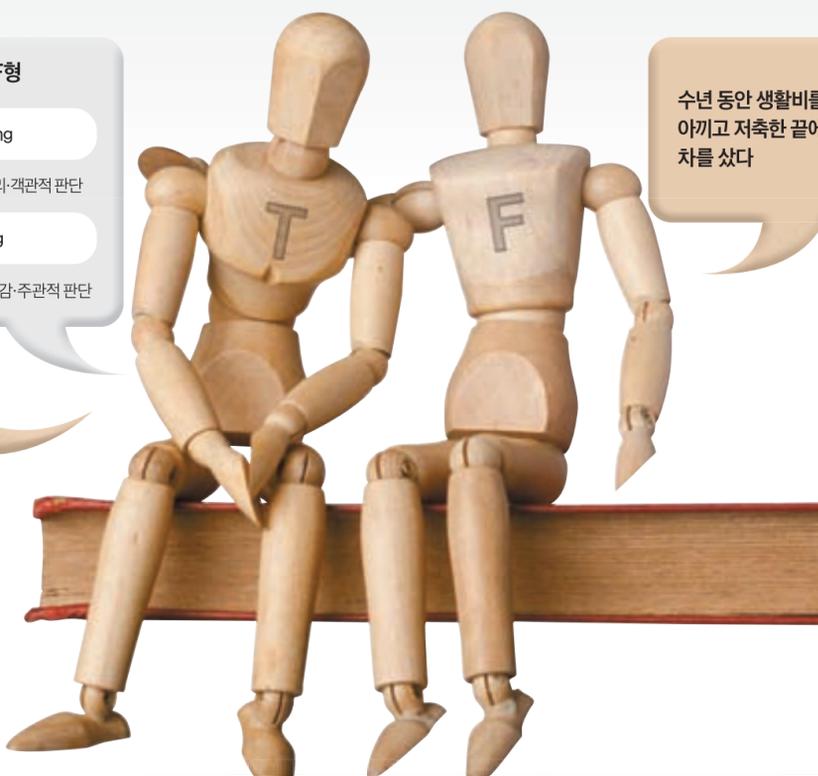
MBTI 성격유형 T형, F형

**T형** 사고형 | Thinking

진실 및 사실에 관심, 논리·합리·객관적 판단

**F형** 감정형 | Feeling

사람 및 관계에 관심, 상황·공감·주관적 판단



수년 동안 생활비를 아끼고 저축한 끝에 차를 샀다

**T형** 어떤 차 샀어?

**F형** 그동안 고생 많았겠다. 축하해

우울해서 빵을 샀어

**T형** 어떤 빵을 샀고 왜 그 빵을 산 거야?

**F형** 어떤 일 때문에 우울해하니?

“날씨가 너무 덥죠?”(강사)

“네...”(A군)

“이럴 땐 ‘더워서 아이스크림 먹고 싶네요’라거나 ‘여름 휴가를 빨리 가고 싶어요’처럼 파생 대화를 해야 해요.”(강사)

“고1이라 여름방학 때 공부만 해야 하는데요?”(A군)

“그럼 여름이 가장 좋았던 추억을 물어 보세요. 상대가 관심 있는 주제로 얘기를 이어가야 해요. 그게 공감의 시작이에요.”(강사)

A군(16)은 강사의 말을 듣고 종이에 ‘상대의 관심을 끄는 대화’라고 적었다.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의 한 스피치 학원에서 열린 공감대화법 3차 수업 ‘주파수 맞추기’의 실전연습 중 한 장면이다. 수강생 5명은 강사와 날씨·여행·음악 등 일상 주제로 대화를 이어가는 연습을 했다. 앞선 수업에선 “오” “대박” 같은 맞장구치는 법도 훈련했다.

실전연습 중 가장 긴 대화는 4분가량 이어졌다. 수강생 박은지(35)씨는 ‘최근 본 영화가 뭐냐’는 강사의 질문에 “기생충 이후로 영화를 안 봤다”고 답한 뒤 “아이를 키우다 보니 기생충 영화 속 집 인테리어가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이후 강사와 ‘아이’라는 공통분모를 주제로 대화를 이어갔다. 대화 도중 “오와” 같은 감탄사도 내뱉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뼉을 치며 호응하기도 했다. 한성이(44) 강사는 “비

언어적 신호까지 잘 활용해 대화를 잘 이끌었다”고 칭찬했다.

최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공감학원이 성행하고 있다. 이른바 MBTI(마이어스 브릭스) 성격유형 검사 결과 ‘T(Thinking-사고형)’ 유형의 사람들에게 공감 능력이 발달한 ‘F(Feeling-감정형)’처럼 보이도록 가르치는 학원들이다. 주로 스피치·연기학원 등에서 대화 기술이나 감정 조절법 등을 강의하는 식이다.

보통 6~10차에 걸친 수업에선 대화 도중 적절한 리액션 방법부터 시작해 유형·상황별 답변 예시 등을 배운다. 수강생의 고민을 상담해 주고 맞춤형 실습도 한다. 이 학원은 한 달에 두 번씩 총 8회 수업인데, 인기가 많아 7명의 수강대기자도 있었다. 다른 공감학원도 “지금 당장 들을 수 있는 수업이 없다” “자리가 남으면 연락하겠다”고 답했다.

수강생은 주로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스트레스를 받는 이들이다. 다섯 살 아이를 키우며 교사로 일하는 워킹맘인 박씨는 “학부모 모임에서 공감하는 척조차 못 하면 육아법도 공유받을 수 없다”며 “아들은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키우고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의 한 스피치 학원에서 공감대화법 실전연습이 진행됐다. 한성이 강사는 “상대가 관심 있는 주제로 얘기를 이어가는 것이 공감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싶다. 학원에서 배운 걸 아이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서로에게 더 많은 ‘공감’을 요구하는 ‘공감 갈증 사회’로 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람의 성격을 16가지로 분류하는 MBTI 테스트가 젊은 층을 시작으로 4~5년 전부터 대유행한 게 발단이였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MBTI 유형 중 사고형(T)과 감정형(F)으로 집단을 나누기 시작했다.

소셜미디어(SNS)에선 T·F형을 구

별하는 “우울해서 빵 샀어” 등 문장으로 반응을 묻는 놀이도 유행했다. 어떤 빵을 샀는지, 왜 하필 빵을 샀는지 등을 물으면 T형, 왜 우울했는지부터 물으면 F형으로 구분하는 식이다. “너 T지” “F 호소인” 등의 말은 T 유형을 비판하는 하나의 밈(meme)이 됐다.

직장인 장모(34)씨의 경우 평소 무뚝뚝한 말투와 표정 때문에 동료들로부터 “극T형”으로 찍혔다고 한다. 장씨는 “상사로부터 ‘T라서 그런가? 보

고서가 공감이 안 되네’라는 말을 반복해서 들으니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동료들과 판다 푸바오가 중국으로 돌아간 이야기를 나누면서 ‘슬프도 못 느끼냐’고 타박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청소년들도 공감 갈증 현상을 겪고 있다. 중학생 B양은 “조금만 T 성향으로 이야기해도 ‘짜짜(사이코패스)’라는 말을 들어 상처받았다”며 “말투나 대화법이 서투른 뿐이지 친구들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니다”고 토로했다. 청주의 한 상담교사는 “친구로부터 ‘내가 아프다는데 위로는 안 하고 병원부터 가져고 하나’는 말을 듣고 상담실을 찾는 경우가 많다”며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못해 친구들과 교류하며 공감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울 기회가 없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감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가 자칫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공감 강요, 공감 중독 사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상황별 답변을 외우거나 MBTI 문항을 미리 파악해 F 성향으로 세탁·위장하는 사례도 있다. 이모(29)씨는 “처음 만나는 사람을 보면 의식적으로 F 성향인 척 리액션을 크게 하는 등 공감하는 척한다”며 “이성적이게 보이면 첫인상이 좋지 못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일부는 T 성향의 오픈 채팅방에 참여해 공감 강요 상황을 하소연한다. T 유형이 모인 오픈 채팅방을 자주 찾는다는 최하늘(29)씨는 “F 유형은 공감을 잘한다면서 정작 T들의 고충은 왜 공감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태연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는 관계 중심적이고 배타적 동류 의식도 강하다. 정서적 공감을 과다하게 강조하면 강요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9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메디메디를 위한 다양한 혜택
- / 저렴한 약 값을 위한 회사별 비교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플랜
- /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유니티 보험** 상담 예약 및 문의 Tel: 703-200-1412

**앤디 김** VA Lic# 639047

##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페어팩스 타운홈 \$875,000** 방3, 화3.5, 차고2. 2001년산 End Unit, Super Location, Walk-Out, 새지붕, 2층 새카펫, New Appliances

**알렉산드리아 콘도 \$310,000** 방1, 화1, 차고1, 2007년산 엘리베이터, Large Fitness, 세탁기&드라이어 In Unit, 24/7 Concierge SVC

**페어팩스 싱글홈 \$880,000** 방4, 화3, 차고2, Ranch 스타일, 1.12 Acre, All Brick, 새지붕&새 거터, 잘 가꾼 뒷마당 숲이 아름다운 집

**페어팩스 스테이션 싱글홈 \$1,200,000** 방4, 화3.5, 차고2, 정원이 아름다운 코너집, 리모델링 중

**김경아** jennetpro4u@gmail.com 703-919-0472

에듀 포스팅

# 아이비리그 진학을 높은 사립고 진학...학업환경·통학 편의·학비 등 따져봐야

여름방학 동안 6학년이 9학년이 되는 학생 중 일부는 사립학교 입학시험인 ISEE, SSAT 등을 준비하며 사립학교 입학에 목표를 하고 있다. 자녀의 고등학교 선택은 대학 진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명문대를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많은 학부모는 사립학교를 선택해야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가 명문대를 많이 보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학생마다 각기 다른 장단점이 있으며, 학업 성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도 고려해야 한다. 사립 중, 고등학교를 선택할 이 시기에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사립 고등학교가 정말로 더 많은 명문대에 학생을 진학시키는가”이다.

미국 전역에서 사립 고등학교 중 가장 높은 명문대 진학률을 기록한 학교를 피더스쿨(Feeder School)이라고도 한다. 이들 중 가장 인기 있는 학교들은 한인에게도 많이 알려진 학교들로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 자체에서 대학 진학의 결과를 발표할 때 일부 학교는 3, 4, 5년 동안의 합계를 발표하고 어떤 학교는 가장 최근의 1년간 발표하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지난 10년의 결과를 발표하거나 결과를 전혀 발표하지 않는 학교도 있어서 참고만 하는 것이 좋겠다.

- Phillips Academy Andover (Andover,

- Massachusetts)
  - Phillips Exeter Academy (Exeter, New Hampshire)
  - Harvard-Westlake School (Los Angeles, California)
  - The Lawrenceville School (Lawrenceville, New Jersey)
  - The Roxbury Latin School (West Roxbury, Massachusetts)
  - The Harker School (San Jose, California)
  - Horace Mann School (New York, New York)
  - Trinity School (New York, New York)
  - Deerfield Academy (Deerfield, Massachusetts)
  - Choate Rosemary Hall (Wallingford, Connecticut)

이외에도 리스트에 오르지 않은 학교 중 한인 학생들도 많이 지원하는 Groton School도 있다.

▶명문대 진학률이 전부일까

사립학교를 선택하는 이유가 오로지 명문대 진학을 때문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선택일 수 있다. 사립학교는 학비가 비싸고, 다양한 스포츠팀과 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지만, 이러한 기회들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지원하



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 위치한 The College Preparatory School은 매년 졸업생의 29%가 한 곳 이상의 아이비리그에 입학한다. 또, 한인 사회에서도 잘 알려진 The Harvard-Westlake School의 경우, 졸업생의 약 30%가 매년 아이비리그에 진학한다.

보통 위에 언급된 10개 학교들은 매년 졸업생의 29%에서 많게는 40%까지 아이비리그에 입학시키지만, 이러한 수치만으로 학교를 선택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대부분 이러한 학교들은 100년 이상의 역사가 있어 그 수치에는 동문 자녀의 입학률도 포함되어 있다.

▶사립 중고 진학 때 고려할 점들

1. 학교의 교육 수준과 학업 환경
  - 교사들의 실력과 높은 수준의 과목(AP) 제

공 여부, 학업에 필요한 시설(도서관, 연구실 등) 및 학생이 관심 있는 프로그램 제공 여부를 따져 봐야 한다.

- 대학 진학을 위한 칼리지 카운슬러의 적극적인 도움과 지원이 있는지의 여부.

2. 학비와 경제적 부담  
4년간의 학비를 고려해야 하며 학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과 함께 과외로 특별활동, 음악, 미술 등 다양하게 들어가는 비용도 함께 고려해서 결정한다.

3. 특별활동 및 지원 프로그램  
학교에서 제공되는 운동이나 예술 프로그램, 각종 클럽활동 등이 다양하게 제공되는지는 학생이 4년 동안 학교 안에서 자신의 관심사를 나타내며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한다.

4. 대학 진학 준비와 대학 입학률  
최신 대학 정보를 학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유능한 칼리지 카운슬러의 전적인 도움이 있는지 지난 5년간의 대학 진학률이 얼마나 높은지 살펴봐야 한다.

5. 학교의 위치와 통학 편의성  
고등학교는 시간 관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학교의 위치와 통학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등하교 시간이 길다면, 4년 동안 낭비될 시간을 생각해 보고 결정해야 한다. 수원원장 보스턴 에듀케이션

대입 들여다보기

# 표준시험 불우 우수학생 평가에 효과...대학들 테스트 옵셔널 정책 놓고 고민

올해 들어 아이비리그 5개 대학을 비롯한 톱 대학들이 테스트 옵셔널 정책을 종료하고 다시 표준 시험 점수를 지원자들에게 요구하는 쪽으로 돌아오면서 SAT와 ACT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올해 초 다트머스 칼리지를 필두로 하버드대, 예일대, 브라운대, 칼텍 등이 2025년 가을 학기 입시부터 지원자들에게 표준시험 점수를 요구한다고 발표했다.

예일대는 ‘테스트 플렉서블’(test-flexible)이라고 부르는 정책을 도입해 SAT나 ACT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AP, IB 중에서도 점수를 낼 수 있도록 조치했다. 코넬대는 2026년 가을 학기 지원자부터 SAT나 ACT 점수를 다시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대학의 정책 변경은 팬데믹 이후 대부분 대학들이 테스트 옵셔널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MIT는 2022년 표준 시험 점수 제출 의무화를 발표했고, 조지타운대도 2023년 유사한 정책을 재도입했다.

지난해 연방대법원이 대학입시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어퍼머티브 액션’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뒤 대학들은 불충분하게 대표되는 소

수계그룹(URM) 학생들을 추려내기 위해 새로운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학업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의 능력이 표준시험 점수로 증명되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크리스티나 팩슨 브라운대 총장은 2023년 동문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표준시험의 혜택이 불이익보다 크지, 적은지에 대한 결론은 경험에서 나온다고 밝혔다. 이 대학은 1년 정도 추가 자료를 수집할 때까지 최종 결정을 보류하다 입시정책위원회가 지난 3월 표준시험 점수 제출 의무화 재도입을 결정했다.

다트머스대는 표준시험 의무화 결정을 뒷받침하는 18페이지 분량의 연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는 다트머스대의 경제학 및 사회학과 교수들이 진행한 것으로 테스트 옵셔널 정책을 시행한 후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학생들의 등록이 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히려 해당 정책 때문에 입학사정관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위치에서 지원한 학생들을 알아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미국 경제 리서치국’(NBER)의 2023년 자료에 따르면 8개 아이비리그 및 아이비 플러스 대학을 분석한 결과 SAT와 ACT는 학생이 학업적으로 대학에서 성공할 능력을 갖추었는지 평가하는 유용한 도구이다. 입시에서 SAT/ACT 점수를 없애는 것은 부유한 가정 출신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이 연구는 결론지었다. 왜냐하면 표준시험 점수가 없다면 입시에서 더 많은 가중치가 에세이, 과외활동, 추천서, 클래스 수준 등에 매겨지는데 각 가정의 경제력에 따라 학생들은 경험 측면에서 불평등한 기회를 갖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고등학교가 아이비 플러스 대학 합격생을 배출한 적이 없다고 가정해 보자.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최고 SAT 점수가 1400점이면 엘리트 대학의 합격생 평균점수보다는 낮기 때문에 점수를 아예 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해당 학생이 표준시험 점수를 의무화한 탑 대학에 점수를 제출하면 그 대학 입학사정관은 불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이 괜찮은 스코어를 얻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합격시킬 수도 있다.

SAT점수 의무화를 발표한 탑 대학들은 표준시험 점수가 고등학교 GPA나 추천서보다 대학에서 학업적 성공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강조했다. 또 성공할 능력을 갖추었으나 리소스가 부족한 학생들을 본의 아니게 무시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테스트 옵셔널 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UC계열대는 아예 시험점수를 보지도 않는 ‘테스트 블라인드’ 정책을 몇 년 전 영구화했다. 프린스턴대, 유엔, 컬럼비아대 등 아이비리그 3곳과 노스웨스턴대, 시카고대, 라이스대, 노티데임대, 존스홉킨스대, 듀크대 등 여러 탑 사립대들도 테스트 옵셔널 정책을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다. UC 버클리 제시 로스슈타인 박사는 연구자들이 100여개의 사립 대학을 조사한 결과 펠그랜트 수혜자가 3~4% 늘고, URM 그룹의 신입생들이 일부 대학은 최고 12%까지 증가한 것이 테스트 옵셔널 정책의 결과라고 밝혔다.

테스트 옵셔널을 그대로 유지할지, 다시 시험 점수 의무화를 시행할지 대학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빈센트 김 카운슬러 어드미션 매스터즈

MD 지이언트 No. 1 에이전트

##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 MD 리퀴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 합니다! (건물 사업체 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Notary Public **Seung Oh**

## 오승환 410.303.0452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 Snoopy Pet Grooming

---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 443-759-9798

 Bank of Hope 와 함께 하는

# 43rd 중앙일보 Student Art & Video Contest

## 학생미술·영상공모전



### 제43회 학생미술·영상공모전 이렇게 달라집니다.

- ✓ 온라인 출품 시스템 (미주 전 지역에서 온라인 출품 가능)
- ✓ 아시안 최대규모 시상 및 장학금 수여 (총 241명 / 총 11,700 불)
- ✓ 미술부문 최대 3 작품까지 출품 가능 (주요상 제외 중복입상 가능)
- ✓ 영상부문 8학년 이상 (개인, 팀(최대 4인)단위로 참가 가능)

#### 작품 접수

접수기간:  
2024년 5월 20일(월) ~ 7월 7일(일)

#### 참가비 안내

\$20 (참가자 전원 기념품 제공)  
Bank of Hope 고객 50% 할인 /  
10인 이상 단체 10% 할인 (중복 할인 없음)



#### 미술 부문

- 참가대상 프리스쿨 ~ 12학년 (현재 학년)
- 작품주제 자유 주제
- 참가부문 유치부 (Preschool ~ kinder)  
초등부 저 (1~2 학년)  
초등부 고 (3~5 학년)  
중등부 (6~8 학년) 고등부 (9~12 학년)
- 작품규격 제한 없으나 기재 필요  
(태블릿드로잉 허용) (3D 조각, 조형물 제외)



#### 영상 부문

- 참가대상 8 학년 ~ 12 학년 (현재 학년)
- 작품주제 희망 (Hope)
- 참가부문 개인, 팀(최대 4인) 단위 참가 가능
- 작품규격 영상길이  
(1~3 분, 16:9 가로비율)

총 시상  
241명

시상금  
총 만불 이상

#### 시상내역

상 명	부 문	미술부문		영상부문	
		수상인원	시상금	수상팀(전부분)	시상금
대상	초등 이하	1명	\$1,000	1팀	\$500
	중등 이상	1명	\$1,000		
1등	각 부문 (1명)	5명	\$300	2팀	\$300
2등	각 부문(3명) 중고등부(6명)	21명	\$200	5팀	\$200
3등	전 부문	70명	\$20	15팀	\$20
4등	가작	100명	상장	20팀	상장

\*영상부문 인기상 1팀 \$200



세부 정보 및  
온라인 참가 신청  
artcontest.koreadaily.com

문의:  
213-368-3723 (2577)  
(중앙일보 교육연구소)

Sponsored by  Bank of Hope

Hosted by  The JoongAng

# 6·25 트라우마 겪는 할머니·엄마·딸 이야기로 BBC 전파 탔죠

방탄소년단(BTS)의 노래 ‘페이크 러브’를 즐겨 듣는 34세의 루아. 독립할 나이지만 엄마 순자(64)의 곁을 떠나기엔 서울에서의 삶이 너무 팍팍하다. 오늘도 엄마가 차려준 밥을 먹고 있는데, TV에서 보이지 않는 신비한 힘이 동물들을 납치하고 있다는 이상한 뉴스가 흘러나온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은 할머니 정희(89)는 패닉에 빠진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 권혁인(38) 작가가 영어로 집필한 BBC 라디오극 ‘스테디 아이즈(Steady Eyes)’의 내용 일부다. 서울에 사는 모녀 3대의 갈등을 통해 한국의 아픈 역사가 개개인의 삶에 미친 영향과 함께 모성의 부재, 정서적 대물림 등의 주제를 탐구한 작품이다.

권 작가는 이 작품으로 BBC 월드서비스와 영국문화원이 지난해 말 주최한 ‘제28회 국제 라디오극 공모전’에서 한국인 작가 최초로 영어 비모국어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스테디 아이즈’는 지난달 15일(현지시간) BBC 국

‘스테디 아이즈’ 작가 권혁인  
BBC 라디오극 공모, 한인 첫 우승  
3대간 갈등 통해 아픈 역사 비춰  
“여러 문화권 아우르는 작가 될 것”



일제강점기를 겪은 할머니부터 BTS의 팬 손녀까지 3대의 삶을 담은 권혁인 작가의 ‘스테디 아이즈’는 “독창적이고 대담하다”는 평을 받았다. 강정현 기자, [사진 BBC]

구해 보고 싶었다. 집필 당시 읽었던 이민진 작가의 소설 ‘파친코’의 영향을 받은 부분도 있다. 전쟁통에서 버텨 살아남은 할머니, 모성을 느끼지 못하고 외롭게 자란 엄마가 도망치듯 택한 결혼에서 태어난 딸, 그리고 그 딸도 자존감 있게 살지 못하고 있다. 지위·명예·부등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서울에서 번아웃을 겪으며 힘들어 한다.”

“작품에선 딸이 외계인에게 납치당하며 끝나는데, 그 뒤엔 어떻게 됐을까.”

“지구엔 60세 이상의 사람만 남는다. 지구 생태계가 무너지고 고령화되는 모습을 의미한다. 그런 디스토피아 세상에선 어쩌면 외계인을 따라가는 것이 새로운 유토피아를 찾는 길일지도 모른다.”

“앞으로의 꿈은, ‘영어로 첫 소설을 쓰고 있다. 내 작품들을 잘 쌓아서 전업 작가가 되는 것이 목표다. 지금은 벌이가 부족해 과학 학술지 에디터 일도 겸하고 있다.”

황지영 기자

제 라디오 방송인 BBC 월드서비스 채널에서 방송됐다.

최근 서울 상암동 중앙일보 사옥에서 만난 권 작가는 “영화 분야에서 일하는 꿈을 갖고 지난 10여 년간 영어·일본어·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글을 써왔다.”

2015년부터 꾸준히 같은 공모전에 출품해 오다가 8년 만에 수상하게 됐다. 한류의 세계적인 현상이 내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가 다양한 언어로 작품을 쓰는 이유는 “언어마다 표현 방식이 달

라 재미있어서”란다. 그는 한예종 영상원 영화과를 졸업한 뒤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와 중국 후단대학교에서 글로벌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권 작가는 “유학 시절부터 서양 미디어가 유색 인종을 묘사하는 방식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우리 이야기를 영어로 옮기는 작업에 더욱 몰두한 것 같다. 여러 문화권을 아우르는 전업 작가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스테디 아이즈’는 어떤 아이디어로 시작한 작품인가.”

“‘전쟁을 겪은 트라우마는 삼대까지 남는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듣고 연



## ‘아들과 같은 유니폼’ 농구 킹 소원 이뤘다

르브론 제임스, 레이커스와 새 계약  
NBA 역대 처음 ‘부자 한 팀’ 탄생

미국프로농구(NBA) 사상 처음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한 팀에서 뛰는 LA 레이커스의 ‘킹’ 르브론 제임스(40)와 아들 브로니 제임스(20)가 주인공이다.

ESPN은 지난달 30일(한국시각) “제임스가 옵트아웃(잔여 계약을 파기하고 FA가 될 수 있는 조항)을 실행한 뒤 3년간 최대 1억6200만 달러(약 2240억원)를 받는 새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임스는 레이커스와 1년 5140만 달러(710억원) 계약이 남은 상태였다.

1984년생인 제임스는 NBA에서 4차례 최우수선수(MVP)를 차지했고, 역대 최초로 4만 득점을 돌파한 전설이다. 지난 시즌에도 정규리그 71경기에서 평균 35분 이상 뛰며 경기당 25.7점

7.3리바운드 8.3어시스트를 기록했다. 레이커스는 이에 앞서 지난 28일 열린 드래프트에서 2라운드 55순위로 브로니 제임스를 지명했다. 2004년생인 브로니는 르브론의 장남이다. 르브론은 드래프트를 앞두고 “아들과 함께 뛰고 싶다”고 말했고, 레이커스는 르브론을 잡기 위해 브로니를 지명했다. 르브론은 아들의 레이커스행이 결정되자, 레이커스 잔류를 선택했다.

2m6cm, 113kg의 아버지와 달리 브로니는 키 1m89cm, 몸무게 95kg으로 체격이 크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농구 지능이 뛰어나고 수비력도 평균 이상이란 평가를 받는다. 브로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모든 것에 감사한다”며 기뻐했다. 레이커스 구단은 “브로니가 등 번호 9번을 달고 ‘제임스 주니어(James Jr.)’라 새긴 유니폼을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NBA에선 조, 코비 브라이언트 부자, 델, 스테판 커리 부자가 활약했지만, 부자가 동시에 코트를 누빈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메이저리그에선 켄 그리피와 아들 켄 그리피 주니어가 1990~1991년 시애틀 매리너스에서 함께 뛰는 적이 있다.

한편 르브론은 제임스 하든과 클레이 톰슨 등 뛰어난 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면 자신의 연봉을 줄일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르브론의 에이전트인 리치 폴은 “제임스는 레이커스의 선수단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라고 전했다.

김효경 기자

르브론 제임스(오른쪽)와 아들 브로니 제임스. 브로니는 최근 NBA 신인 드래프트에서 LA 레이커스의 지명을 받았다. 사상 최초로 부자가 같은 팀에서 뛰게 됐다. [AFP=연합뉴스]



① 워싱턴 중앙일보 **좋은 아침! 좋은 신문! 중앙일보**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구글지도 광고로 경쟁사를 앞지르세요**

가장 잘 보이는 TOP3 업체 위에 사장님 사업체를 뜨게 해 드립니다!!

고객이 많이 찾는 구글 로컬 검색대..

새고객, 매출 증가가 잘 안되시나요?  
내 사업 불경기 탈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703-337-0123**  
www.Intelisisystems.com

인텔리시스템의 3가지 장점

1. 저렴한 비용
2. 편리한 플러비스
3. 믿을 수 있는 회사

웹사이트 제작, 구글광고 & SEO, 고객 리뷰관리, 소셜미디어 광고, 문자 마케팅, 온라인 쇼핑몰, 이메일 마케팅,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기타

#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교통사고
- 직장사고
-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 직원모집

##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 회계사 사무실 구인

유경험자 우대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 정성웅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카툰 릴레이

THE SIXTH SENSE

# 식스센스

오늘의 주제 술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손준혁 · 장우혁



##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7월  
구  
인  
광  
고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 모집분야 ◀  
사무직 (월-금)  
▶ 대우 ◀  
유급휴가 /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Resume to:  
hr@worldbankcard.net  
▶문의: 703-225-5500◀

**뉴욕 광어낚시  
동우회 회원 모집**

마감 목요일  
저녁 6시까지 접수 마감

주말 금요일 밤  
Frederick(MD)  
270, 80 교차로 E.  
EXXON GAS STATIONS에서  
3명 이상 모여서 출발.

토요일 아침 뉴욕에  
도착해서 Seo Queen VII Boats  
7시 보트 출발, 차량, 낚시대 완비

**202.553.855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 풀타임 & 파트타임
-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 이중언어 우대
-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1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LÓTTE Plaza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 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 \* 풀타임/파트타임
- \* 영어/컴퓨터 사용
- \* Annandale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구함  
노임 전문 변호사**

체불임금 80만불  
받아내면 50%씩  
나눠가지기로 합니다.

Looking for a lawyer  
specializing in labor.

If we receive \$800,000  
in unpaid wages,  
we will split 50% each.

Glimck2@gmail.com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  
라이선스 교육 가능
-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나투라 치과  
직원 모집**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 파트타임 (월/화/목/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직원 모집**

- ▶ 풀타임 가능하신 분
-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topcpainfo@gmail.com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엘리콧시티  
택시**

볼티모어 지역 환영  
장거리 특별 요금  
어느 곳이든 24시간 OK

**TAXI**

회사 위치:  
볼티모어 롯데 마켓 근처

**OK 택시  
240-796-0093**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7월 2일 화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증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일보 애독자 분들께 알립니다**  
오는 7월부터 생활안내 섹션 출고가 1개월 \$20 유료광고로 전환을 알립니다. 기존과 신규 일반광고주는 계속해서 무료로 출고와 서비스 해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출고로 무료 게재하지 않습니다. 생활안내 무료 광고를 애용해주신 분들께 앞으로도 변함없는 후권과 관심, 지속적인 이용 바랍니다.

**단체 광고 문의 접수 받습니다.**  
보험, 골프레슨, 홈비즈니스 등 같은 전문 분야 분들이 공동 광고를 통하여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꾸준히 이미지전달을 통해 사업에 도움이 되는 혜택을 누리세요.  
▶ 사제문의: 703-281-9660  
또는 kdclass2018@gmail.com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구인/구직

### 사무직/세일즈 마케팅

Accountant: Manage daily operations of ledgers such as payroll, billings, accounts payable & receivable, cost allocations; Use accounting programs such as Quickbooks and Payroll Relief; Financial statements preparation. 40 hrs/week. Bachelor in accounting or Business Administration req'd. Send the application with proof of qualification to Employer & Job Location: Michael W. Sim & Company, P.C. at 4605 Pinecrest Office Park Dr. Suite E, Alexandria, VA 22312.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타임/파트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 문의: 571-348-3723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풀타임/파트타임  
-영어/컴퓨터 사용  
-Annandale 인근 지역  
▶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호사 회사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중언어 가능하시면 경험 없어도 Training 하여 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 이력서 : KDLHJL@gmail.com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경력자 우대(P&C License 소지자)/신입환영  
-MS Office 사용가능자  
-Benefit: 401K/Health Insurance/PTO/Sick Leave  
▶ 지원: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유급휴가,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볼, 20볼, 22볼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 이력서: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력 40k-50k 베네핏 제공  
▶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탐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엇시티, MD)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할 곳: ceo@toptravelusa.com  
▶ 703-256-0606

탐 여행사 바스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할 곳: ceo@toptravelusa.com  
▶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온라인 세일 및 웹사이트 관리자.  
MD소재 식당장비 회사의 웹사이트 관리 및 온라인 세일 관리 도우실분. 채택근무. 파트타임 가능. 자기소개, 근무가능 시간 및 희망보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571-332-2101(문자)  
edk.tre@gmail.com

롯데플라자 마켓 본사인 승원에서는 그래픽 & 웹디자인을 구합니다.  
■모집부서: 그래픽 디자이너 / 웹 디자이너  
■근무형태: Full Time (Mon.-Fri.: 7:30AM - 5:00PM)  
■근무지: 승원본사 디자인실 (Jessup, MD) chankim@lotteplaza.com으로 Resume와 포트폴리오 첨부

유재신 회계사 애난데일 공인회계사사무실  
경력자우대, Benefit, 영주권 스폰서 가능함, 무경력자도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분  
이력서: acct.one3@gmail.com

Annandale, VA에 위치한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우대, 무경력자도 환영. Benefit 있음(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acct.one3@gmail.com

Wanted Sales/Marketing.  
Y1 design factory, LLC  
443-240-5114

건강 용품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하실 분 / 영어 가능하신 분  
703-798-7270

한상준변호사 사무실  
이민법에 관심있으신 Entry Level Associate Attorney 및 직원을 구합니다.  
LLM 환영, 이민법 Training 제공, 취업비자 지원 그외 저희 사무실과 동반 성장을 원하시는 변호사님의 문의로 환영 합니다.  
lawsjhan@gmail.com  
703-256-5050

첼트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키징/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 분  
ceo@hanmipost.com \*스폰서 가능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파트타임/풀타임 직원모집  
학생및 유/무경력자 환영, 컴퓨터/영어가능자, 취업비자/ 영주권스폰 가능  
이력서: annandalecpa22@gmail.com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에서 fulltime 회계직원 구함  
www.visitlod.com  
-Quickbook/excel경험필수  
-1년이상 회계업무경력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SL Division Manager: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통역 매니저 구함  
-통역사들의 스케줄관리  
-정부계약및 vendor 관리  
-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Silver Spring, MD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 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경력자 구함.  
albert@w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회계사 사무실 구인/ 유경력자 우대  
Benefit (건강보험/보너스/ 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함  
무경력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분  
luvacct1986@gmail.com

JTBC-중앙일보 워싱턴 총국에서 '행정·코디지'를 채용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 근무조건: 풀타임  
- 근무내용: 워싱턴 총국 행정, 취재코디 및 기타  
-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미국 취업에 결격사유 없는 분  
-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 접수처: kim.hyounggu@joongang.co.kr  
thkang@joongang.co.kr  
phil9@jtbc.co.kr

버지니아 한의과 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마사지사 구합니다.  
- 타이슨스 코너 5분거리  
- 풀타임/파트타임 가능  
▶ 571-243-4251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함  
▶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센터빌,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 703-865-6455

나투라치와 어시스턴트 및 리셉션니스트  
월/화/목/금, 영어가능자

Entry-Level Welcome  
▶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풀타임  
유경력 여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경력자 우대, Den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 703-256-3005/703-830-0993

닥터 오피스에서 full or part time 직원 구함.  
락빌/ 콜럼비아  
이중언어, 신분에 결격사유 없으신분  
문의 301-580-5777

1)덴탈랩 경력자 세일즈 구합니다  
Germantown/MD  
2)성실한 세라미스트 경력자 구합니다  
덴탈랩 Germantown/MD  
3) CAD/CAM 파트, 테크니션 구함  
4)덴탈랩 오피스 사무직 직원 구함  
(풀타임/경력자 우대) 저먼타운 MD  
404-477-5683

워싱턴 데이케어에서 일하실분 구함.  
- 데이케어 직원 / 주방보조 / 간병사(남,여)  
문의: 703-850-1100/703-963-1234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지역, MD  
-경험많은 Handyman  
-Part Time Office관리자  
-정육부관리자  
\*Capitol Heights지역, MD  
-사무보조:이중언어 가능자  
\*PT 20-35HR:\$17-20/H  
jobsmd@outlook.com  
문의:(301)333-2209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우대  
P: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Day Care Drive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 병원/치과/덴탈랩/한의원

▶ 703-657-0944  
E-mail: admin1@lovehandhomehealth.com

롯데플라자 마켓 본사 승원유통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 위치: 메릴랜드 채섭(Jessup)  
1. 승원 물류센터 사무직원 모집  
- 업무: 사무직원 (서류관리 및 인보이스등)  
- 시간: 주 32 ~ 48시간(주 5일 근무 가능)  
2. 승원 물류센터 현장 관리자 모집  
- 업무: 현장 직원 관리 및 입고고 관리  
- 시간: 주 48 ~ 52시간  
- 유경력자 우대(물류센터 운영 전분)  
접수방법: 간단한 이력서 작성 이메일 접수

▶ 연락처: han97003@lotteplaza.com  
240-750-0016 / 물류센터장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텔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 sijang.sterling@gmail.com

정보 인터내셔널 슈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 우드브릿지 지구촌마켓 한식코너  
파트타임 캐쉬어 구함(화, 수요일)  
410-961-7376

한식 일식당 sushi chef 구합니다  
플로리다(마이애미) 지역 속속 완비  
561-525-6544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파/풀타임(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  
필드 몰에서 5분거리, 문자요망  
703-371-1263 / 703-899-5098

알링턴의 Gute Leute 커피샵에서 커피에  
대한 열정을 가진 바리스타를 모집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 분들도 환영합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  
요.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센터빌 K-밥상 (롯데 푸드코트)  
가족같이 일하실 캐쉬어 구합니다.  
443-864-0091

엘리엇시티 Cafe June에서 샌드위치 싸실 분  
유무경력자, 풀/파트타임  
443-386-0515

알링턴 gute Leute 커피샵에서 바리스타  
구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 분도 환영  
합니다.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 식당/제과/델리/식품

MD 글렌버니지역 Severna Park  
베트남국수 식당 Full/Part Time  
Hall Server 구합니다  
240-678-5395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업 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 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Jim Dong  
571-294-0057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کم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7월 2일 화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1

TTA 애난데일콘도 방1, 주방/욕실/지정주차  
가, 세탁기/냉장고, 남자분/금연자  
571-355-6624

애난데일 지역 싱글홈, 방1개 렌트  
▶703-470-5238

센터빌 타운하우스 베이시먼트,  
롯데, H-mart 2분. 출입문 별도, 인터넷,  
화장실, 샤워, 유틸리티 포함. 출퇴근 하시는  
한분만 원합니다.  
703-405-9005

센터빌 콘도, 방2, 화지실2, 2층, Loft애난데  
일 도서관서동쪽 0.7마일 콘도 방1,  
취사가, 월 \$840(유포), 남금주금연자  
571-335-3739 (6pm 이후)

Ellicott City 가까운 Hanover 지역  
지하전체 세 놓음  
240-393-5530

단독주택 출입문 별도.  
지하방2 부엌 거실 욕실등(문자요망)  
202-985-9191

단독주택 센터빌 CVS 근처  
인터넷, 윗층큰방 하나 여자분 환영  
571-251-2885

애난데일 H mart 옆 방 1 세놓음, 인터넷,  
가구일체, 취사가가능, 유포 \$700,  
직장다니는 남/녀, 즉시입주  
703-350-1986

Fairfax/Burke NOVA, GM n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 인터넷, \$600,  
여자분 한함, 문자바람  
571-214-0188

## 사무실/점포 렌트

아난데일 오피스 렌트 (쉐어) 사용공간 룸2개,  
리셉션, 화장실, 부속실, 스킨케어, 한의원, 네  
일, 병원 적합.  
703-989-1933(애니)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Message문자주세요)

애난데일 한강위 고급콘도의 사무실렌트  
703-835-7404 (Wifi 제공)

애난데일 미용실 내에 룸  
(침대 2개와 티 테이블 놓을 수 있는 사이즈)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 등등 활용 가능. 헬퍼 구합니다.  
301-852-9298 ( 문자)



## 싱글/타운/콘도 매매

콘도렌트 \$1,900 Springfield 아난데일 10  
분 거리, 방 2, 화장실 1, 세탁기, 건조기  
나무 마루, 깨끗한 화장실, 넓은 리빙룸,  
큰 발코니 파킹 3개 층분  
리모델링하여 밝고 환한집.  
▶703-477-3114

애난데일 H mart 옆 콘도 매매 (owner)  
\$340,0000 방 2 화 2 세탁기 1218 SF.  
Condo fee \$390  
703-350-1986

1.Coming Soon 애난데일 싱글홈  
\$899,900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  
한 단독주택, 방4, 화 4, 편리한 레크리 스타일  
2.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4, 화 2½, 1,612s.f., 교통편  
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703-477-3114

렌트 수입 좋은 콘도 5채 매매  
-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5,000/m  
- 매매가 \$699,000(Cash Only)  
Serious Inquiry Only  
▶703-244-3453 \*Agent 환영

1.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교통 및 생활여건 좋아진 Manassas,  
병원, 사립몰,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2. 싱글 \$520,000-590,000  
방 3, 화 2.5, 0.3에이커 대지 단층집,  
워크아웃 베이시먼트

3.타운하우스 \$440,000  
방 3, 화 2.5, 1car 거라지  
4.콘도 Main level \$300,000  
방 3, 화 2, 콘도 Fee \$260/월  
▶703-483-0505

스프링필드 공원옆 좋은 위치 싱글홈  
위층 방3개, 화1개, 부엌, 리빙룸, 다이닝 /  
아래층 방2개, 사무실, 화2개, 현관 리빙룸 /  
(세탁기, 히터, AC)  
703-336-3283(자세한 사항 문의)

## 부동산/상업용 매매

1. 미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사립몰,  
1,500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 렌트비  
2. B2 상업용 용지 \$2M  
2.4 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 주택지  
개발 중인 진입로 독점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703-483-0505

성업중인 미국 당구 스포츠 바 매매/리스  
메릴랜드 로얄 포트미드 베이시 앞  
13,000 SF, 28 당구대 완비  
경험 많은 Serious Inquiry Only  
▶703-244-3453

Vienna VA /Diamond Nails Spa 매매  
· 주소: 108 church st NE Vienna VA 22180  
· Sale Price: \$290,000  
· Weekly's sales: \$6300. (평균)  
· 단독건물 단독사용, (약 3000SQF)  
· 원하시면 건물 매매도 가능합니다.  
· Potential: Head Spa, Hair salon,  
Upgrade Massage, Upgraded Facial  
· 파트너십 / 여러다양성을 키울수 있습니다  
· Rent: \$7880 (모든것 포함)  
(10년간 렌트 인상 없습니다)  
· 노던 버지니아에 최고의 심장부에 위치한  
최고에 장소 입니다  
▶571-421-0863

버지니아 한인타운 성업중인  
반찬집/떡집/레스토랑 팝니다. 1700sf.  
한식, 일식, 중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703-989-4301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크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 분.  
문의: 443-262-1813

일식집, 예쉬번 좋은 위치 무한 발전  
가능한 곳 관심있는 분 연락 주세요.  
703-951-2203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 결정 당일 현금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1. 메릴랜드 자이언트엠티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장점 있음.  
2. DC 리퀴 비즈니스 매매 \$190,000  
연매상: \$598,000/6일근무/전체 2400/SF  
1.2층.B1(공간활용 가능)  
571-242-3736 (연락주세요)

## 기타

치과 임플란트: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40년 경력  
▶▶703-569-8000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  
Real ID 신청/차량 구입·등록/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Jim Dong)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버크레이크에서 멀레레이크까지  
오솔길 6마일(2시간) 걷기  
·장소: 버크레이크 월터 / 시간: 일 아침 9시  
- 숲속길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 포시즌 워킹 클럽  
▶703-939-5223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단/ 장기기간도 주인이 직접 한국식으로  
돌봐 드림.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춘 2분거  
리), MD 타주분들도 환영! 직접 방문 확인!  
▶571-278-8811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703-678-6639

유기견 해외입양 이동(임양보호) 봉사자  
한국에서 미국 돌아오시는 길에 유기견 해외  
입양 보호자 봉사 하실분. 비용과 서류 절차  
등은 유기견 단체에서 다 제공하며 봉사자가  
별도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유기견 들의 새로  
운 삶을 위하여 봉사 바랍니다.  
▶문의: 카톡 ID 연락처 sibang0622  
전화 010-8944-3363, 703-244-3453

신선한 야채 배추, 무, 갓, 알타리무를 농장 가  
격으로 공급합니다. 신속 정확하게 공급합니  
다. 교회, 식당환영  
240-796-0093

컴퓨터 업그레이드, 고쳐드립니다.  
데스크탑, 랩탑, Mac 컴퓨터 데이터백업이나  
수리 새제품, 중고제품 판매  
703-624-2295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공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밋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터, DMV, 등...  
차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컴퓨터 업그레이드, 고쳐드립니다.  
데스크탑, 랩탑, Mac 컴퓨터 데이터백업이나  
수리, 새제품, 중고제품 판매  
703-624-2295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 카톡ID: jimdong123  
-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Golf 레슨합니다. 초보자 원포인트 환영  
706-203-5800

Falls church VA 메모리얼 파크 최고 명당  
한자리 풀 옵션 절반 깃가로 판매  
443-355-7700

Math Tutoring (수학 지도)  
Algebra/ Calculus/ Geometry  
703-945-2991 (Text) Mr. Lee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 중고품/기타매매

무빙세일 역 이민 관계로 가구 및 생활용품  
을 정리합니다. 냉동고, 컴퓨터, 옷장, 히터,  
서랍장 외...  
703-203-5177(3시 이후 전화요망)

LG UHD AI ThinQ 65" 4K Smart TV \$230  
거의 새것. TV original box/case.  
571-232-6071(문자요망)

## 건축/페인트/마루

▶A HOME STAR CONSTRUCTION  
리모델링, 에디션, 텍, 팬스, 지붕  
제너럴 컨트랙터  
\*703-434-2810

Mr. Lee 페인트 703-508-7214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견적  
▶703-395-005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페인팅(In, Out), 텍 메인テナンス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디맨서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 모든공사, 추정부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가입, 카톡 아이디: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자동차/주택/사업체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페어웨이애셋 워싱턴 한인 전문 용자회사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 소득/가스검사

JD STAR 소득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 냉동 & 히팅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테리어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달러,  
덕트, 드라이어벤트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  
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이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 보석

골든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  
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콧시티, MD)

## 카펫, 에어덕트 클리닝, 마루

토달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러파워 스팀삼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파워풀청소.  
응급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운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운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밖 물세는 것

▶703-499-5984

## 이사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체  
▶571-364-4185/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을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  
사짐 포장이사, 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 핸디맨/리모델링/전기

핸디맨(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드립니다.  
페인트/플로밍/전등/핫탱크 등 교환·수리  
▶571-567-5165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서비스  
집밥-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443-980-5858(MD)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센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전기마스터면허와 1M 보험 보유업체  
▶703-855-3565

## 유리

JK유리 & Window  
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 임업/멸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중앙유리  
샤워도어, 자동차,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샤워도어, 자동차문,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 보험

###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 냉·난방

###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조?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드 먼지와 세균 알라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 건축 / 페인트

# TK 종합건축

Since 1988

###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벽,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 레드문 페인트

▶ 욕실·주방 리모델링 전문

▶ 마루·텍·케비넷 샌딩 보수

▶ 타일·목수·HoA 지적 신속 수리

▶ 핸디맨·플로잉 서비스

703.965.3011

## 라돈 가스 검사/유리

###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2위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미국 15채중 1채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꼭 **검사**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93-209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타주이사

해외이사

시내이사

ICC인가업체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100% 자체보험으로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 조양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 귀국 이사 전문

▶ 자체 창고 보관

▶ 타주, 시내 이사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 Movers LLC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 MD 업소 안내

## 냉난방

###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 소독

###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 건축

###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 전기공사, 페인트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24시간 출장가능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http://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점**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mailto:mimovingllc@gmail.com)

**쥬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싱크, 욕실, 화장실, 무역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온수, 히터 (가스/전기)  
Dishwashers,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러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크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택,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폴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http://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mailto:bbgbl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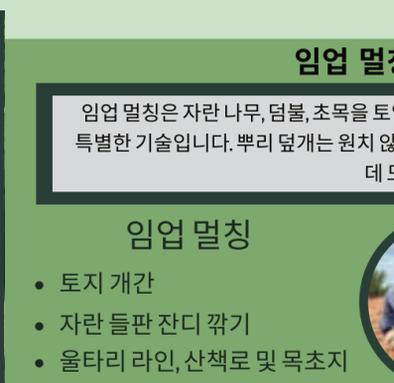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Luxury Vinyl Tile)
- VCT(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Laminate)

**703-395-0050**

임업 벌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전**  **후** 

**임업 벌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벌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벌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전**  **후** 

**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Randy: Hi Irene! How are you?  
랜디: 아이린! 어떻게 지내?  
Irene: I'm good. It's been a long time.  
아이린: 난 좋아. 오랜만이네.  
Randy: Yes it has about six months.  
랜디: 그래 한 6개월 됐나.  
Irene: You're looking good.  
아이린: 좋아 보여.  
Randy: Thank you and you as well. How's your boyfriend Cliff?

랜디: 고마워 너도 좋아보여. 남자친구 클리프는 어떻게 지내?  
Irene: Oh, we're not together anymore. We parted ways.  
아이린: 아, 우리 더이상 사귀지 않아. 헤어졌어.  
Randy: You broke up?  
랜디: 헤어졌어?  
Irene: Yes. We just didn't see eye to eye with each other on a lot of things.  
아이린: 응. 여러가지 일에 대해 의견 차이가 많

있어.  
Randy: That's too bad.  
랜디: 그랬구나.  
Irene: And how's by you?  
아이린: 그래 너는 어떻게 지내니?  
.....  
기억할만한 표현  
▶ to break up (with someone): ~와 (사귀다가) 헤어지다  
"They broke up about two weeks ago."

(그 사람들은 2주 전 헤어졌습니다.)  
▶ don't see eye to eye with one: 동의하지 않다  
"My father-in-law and I don't see eye to eye on politics. We're always disagreeing."  
(장인어른과 저는 정치에 있어서는 견해가 다르죠. 항상 서로 의견을 제기하죠.)  
▶ how's by you: (격의없이) 어떻게 지내세요?  
"Hi Jim, How's by you?"  
(안녕 짐. 어떻게 지내?)

part ways: 각자 길을 가다, 헤어지다

(Randy is talking to Irene at a mall a friend he hasn't seen in a long time...)  
(랜디가 오랫동안 못보고 지낸 친구 아이린과 쇼핑몰에서 얘기한다...)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가로 열쇠

(1)신라 때 청소년으로 조직되었던 수양단체 (3)야구에서 본루, 1루, 2루, 3루를 연결한 선 뒤쪽의 지역 (5)고등 포유동물에 있는, 소화기의 맨 끝에 있는 구멍. 직장의 끝 (7)같은 중심을 가지는, 반지름이 다른 두 개 이상의 원 (9)오랫동안 낫지 않아 고치기 어려운 병 (10)무로 담긴 일본식 찐자. 일본의 다쿠양이라는 사람이 처음 만들었다 (11)밤 열한 시부터 오전 한 시까지 (12)방구들을 뜯어 고칠 때 나오는 흙과 재. 거름으로 쓴다 (14)조정 of 모든 벼슬아치. 상감의 눈은 동인과 서인들 ~을 천천히 둘러본다. □□백□ (15)편한 마음으로 자기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 앎. 욕심을 버리고 ~을 하며 살

고 있다. □분□□ (18)키잡이 (20) 먼 길을 떠나 오가는 데 드는 비용 (21)중국 된장에 비벼 먹는 국수 (23)음식을 몹시 탐내는 사람. 새끼를 낳은 암돼지 (24)도기를 굽던 가마의 터 (27)군대, 탐험대 따위의 활동의 기점이 되는 근거지 (28)쇠와 돌. 아들이 살아 있을 거라는 어머니의 믿음은 ~같았다 (29)인간관계가 넓어서 폭넓게 활동하는 사람

세로 열쇠

(1)밀랍으로 만들어 색깔을 들인 초. 흔히 결혼식에 사용한다. ~을 밝히다 (2)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짓 (3)단 하나뿐인 아들 (4)밤이 깊음 (6)문짝 주변에 바른 종이 (8)옷 따위를 만드는 데 원료가 되

는 천 (9)갑오개혁 이전의 시조를 현대 시조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11)스스로 우쭐거리며 뽐냄 (12)사람의 말을 잘 흉내 내는 새 (13)피부에 수분을 주어 피부 표면을 다듬는 화장품 (16)죽은 사람의 넋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곳 (17)그림이나 글씨 따위를 표구하여, 벽 등에 걸거나 두루마리처럼 말아 둘 수 있게 만든 물건 (19)다른 산의 나쁜 돌이라도 자신의 산의 옥돌을 가는 데에 쓸 수 있음 (21)직물의 찢어진 데를 흠집 없이 짜서 꿰매는 일 (22)수염을 깎음 (23)어린이가 걸음을 익힐 때 발을 떼어 놓는 걸음걸이 (25)오목함과 볼록함. 한자로 이렇게 쓰죠. 凹凸 (26)신변 가까이에서 여러 가지 시중을 들

스도쿠

2	7	1							
		3						6	
9							7	2	3
8					3				
	1		5		7		8		
			8						9
6	4	9							7
	5						4		
							8	3	5



자료제공=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5	8	9	4	6	2	1		
9	7	6	2	1	8	5	3	
2	1	2	5	8	3	6	7	9
6	5	3	7	1	8	2	9	4
2	8	9	2	6	5	3	1	7
1	2	7	3	9	2	5	6	8
3	2	2	1	5	7	9	8	6
8	9	1	6	2	7	4	3	5
4	6	5	8	3	9	1	2	7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오는 7월 1일 부터 조정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카드 유효 기한 (EXP. DATE): / / month year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L.A** 정월기구 수리/판매점  
30년 한주인 운영, 씬가격  
가든그로브 (714)788-4336

**기타 지역**

**매매** 미용실-LA한타근처  
가격:\$4만(내고가능)  
(818)288-3762

**구인**

**급매 한국택배**  
FEDEX/ MAILBOX  
AT&T/ SPECTRUM  
11년간 운영, VALLEY 지역  
트래픽/ 포텐셜 많은장소  
가3만 (213)572-7977

**성업중인 옷수선가게**  
토렌스 PV지역,가 3만5천  
년매 8만 (310)995-8925

**죽/죽헬퍼**  
성실하신분 환영  
중식당,숙식제공  
알래스카 주노지역  
(907)209-1920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30년 이상된  
**미용재료상**  
안전한 라티노 지역  
역력: 인벤토리만!  
LA 지역  
(818)746-0521

**식당 주방일하실분**  
부부팀도환영, 숙식제공  
알래스카 (907)855-1228

**주방장**  
숙식제공 조지아주지역  
(646)229-2708

차별화된 한국제품이 많은~  
**미주 최대 한인 온라인 쇼핑몰**  
Hotdeal.Koreadaily.com

**HOT DEAL** LA KTown 213.368.2611  
690 Wilshire Place Los Angeles, CA 90005

##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독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총장 법학박사허워드리

### 개인 / 비지니스 / 용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 비지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험드신분
-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 다쓰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퍼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80~90대 · 비아그라 효과 없는 남성도 30분 전에  
**1알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강직도 · 지구력 단번에 해결, 만성 발기부전,  
전립선비대증, 고혈압, 통풍, 근본 원인 치료  
남성용 1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즉효성 남성 발기제  
& 남녀공용 성욕 강화제 유희유  
**1-213-210-9720/papaaaa.com**

### 서류 대행업소 매매

LA 한인타운 최고의  
**이민, 법률 서류 대행 사무실**  
· 가격 \$36만 · 주5일 (9-5시)  
· 월순의 \$1만5천 · 30년 운영 은퇴  
**(213)712-4294**

### Leisure World Seal Beach, CA

##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함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미라클치로 살면  
**Up to 40%  
할인**  
헛산삼 세일

50파운드 이상 구입시 흥세일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건강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치로 발기 능력 쑥쑥  
향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치로 벅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히스패닉 중풍환자 2개월 치료받고 "이제 웃을 수 있어요"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성민산삼한방병원  
환자와 가족 모두 놀라는 중풍환자 실제 치료사례  
[사진왼쪽,서영수 한의학박사와 델희노씨]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사진 오른쪽 치료전, 치료후]

### "대한민국 100대 프랜차이즈" JAWS TOPOKKI Franchise Partner 모집

**KOREAN STREET FOOD의 대명사 '쫄스 떡볶이'와 프리미엄 김밥 '바르다 김선생'**  
복합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법인에서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미국 JAWS BUSINESS를 함께 하실 파트너 분을 초대합니다.

**A. AR (Area Representative) 모집**  
해당 State에서 JAWS Business 가맹 사업을 총괄하실 Business Partner를 모집 합니다.  
(IL, NY, TX, MD, VA)  
상담문의 E-Mail : info.tpk@jawsfood.com C.P : 714-715-5595

**B. 미국 매장 현황**

1. The source Mall (CA)
2. LA K-Town (CA)
3. Balboa H-mart San Diego (CA)
4. Johns Creek (GA)
5. Suwanee (GA)
6. Mall Corners (GA)
7. Tampa Lotte Mart (FL)
8. Haven City Rancho Cucamonga (CA) 7월 오픈
9. Palisades Park (NJ) 7월 오픈
10. Irvine H-mart (CA) 7월 오픈
11. Haven City West Covina (CA) 8월 오픈
12. Urbana H-mart (IL) 9월 오픈 (가맹 모집 중)
13. Orlando H-mart (FL) 10월 오픈
14. Seoul Street Anaheim (CA) 11월 오픈
15. Bonita Mall San Diego (CA) 11월 오픈
16. Harry Hines H-mart (TX) 11월 오픈 (가맹 모집 중)

**JAWS Topokki**

당뇨환자와 다이어트에  
**희소식!**

칼로리를 내리는 날씬한  
**저당밥**

40%~  
**49%**  
탄수화물  
DOWN

탄수화물은 낮추고  
**내 몸을 건강하게**

당뇨와 다이어트에 좋은 저당밥술 SALE  
**banustory.com | 213.800.5749**

1세대 저당 밥술  
New 2세대  
스테인리스 304 내술  
직접가열식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4년 현재 30년간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 SPECIAL**
-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http://www.HANKOOKMOTORS.COM)

#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